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초등학생의 효 의식 조사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고 희 천

2002년 8월

제주도 초등학생의 효 의식 조사 연구

Research Study on the Level of Filial Piety of Jeju Elementary Students

지도교수 변 종 헌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5월 일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고 희 천

고희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 위원 _____인

심사 위원 _____인

2002년 7월 일

제 주 교 육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 국문 초록 〉

제주도 초등학생의 효 의식 조사 연구

고 희 천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지도교수 변 종 헌

효는 우리의 전통 가치 중 가장 으뜸 덕목이다. 하지만 전통적 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효에 대한 관념이 점차 바뀌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효를 현대적으로 조명해 보고 우리의 가정에서 행해져야 하는 효의 실천방법을 재정립해야만 할 시기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 윤리인 효의 의미와 그 형식적 의의를 고찰하고, 제주도 초등학생의 효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효 교육의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과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도 초등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존경, 애정, 동정심에 인식 정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의식은 부모와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부모님이 가장 안쓰럽고 측은해 보일 때는 모든 조사대상자가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라고 대답했으며, 특히 장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일 때가 가장 측은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부모님에 대한 존경, 애정, 동정심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게 나타났고, 차남과 차녀보다는 장남과 장녀가 이것을 더욱 직접 표현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구성원의 화합과 이웃에로의 확대에 대한 인식 정도

부모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는 다른 형제자매의 편을 들면서 본인에게 양보를 강

요할 때였으며, 중대사나 고민을 부모님과 상의하는 경향은 독자가 동생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나에게 시킨 일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부모가 시킨 일이니까 무조건 한다고 대답하는 비율은 조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제자매가 있는 초등학생들은 형(언니, 누나)이나 동생에게 양보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여 형제가 1-2명이고 핵가족이 대부분인 요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 희생, 책임과 임무에 대한 인식 정도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누가 모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남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의 영속과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봉사 의식 조사 결과

남학생은 의학기술을 빌려서라도 자식을 얻어 대를 이으려는 생각이 많았다. 차남보다는 장남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상에 대한 제사와 차례는 장남(큰아들)집에서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효에 대한 인식을 기성세대가 우려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Ⅱ. 이론적 분석 ····· 3
1. 효의 의미 ····· 3
2. 효 개념의 전개 ····· 5
3. 효의 현대적 의의 ····· 14
4. 초등학생들의 효 의식 측정을 위한 효행 동기 분류 ····· 18

Ⅲ. 연구의 방법 ····· 20
1. 조사대상의 표집 ····· 20
2. 조사 도구 ····· 22
3. 조사결과 처리방법 ····· 22

Ⅳ. 조사 결과의 해석 및 고찰 ····· 23
1. 부모님에 대한 존경, 애정, 동정 ····· 23
2. 가족 구성원의 화합과 이웃에로의 확대 ····· 29
3.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 희생, 책임과 임무 ····· 40
4. 가족의 영속과 돌아가신 부모님 및 조상에 대한 봉사 ····· 46

Ⅴ. 결론 ····· 52

참고문헌 ····· 55
Abstract ····· 56
부 록 ····· 59

표 목 차

<표3-1>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도 ····· 20
<표3-2> 조사대상의 변인별 분포 ····· 21
<표4-1>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 24
<표4-2> 부모의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 ····· 25
<표4-3> 부모님에 대한 애정 표시 방법 ····· 26
<표4-4> 부모님에 대한 동정심 발생 시기 ····· 28
<표4-5> 부모님의 원망스러울 때 ····· 30
<표4-6> 어려운 일 발생시 부모님과 상의, 의견 존중 여부 ····· 32
<표4-7> 부모님의 명령에의 복종방법 ····· 33
<표4-8> 형제자매간 의견 차의 조정 방법 ····· 35
<표4-9> 어른에 대한 존경 의식 ····· 37
<표4-10> 나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의견 ····· 39
<표4-11> 효경의식 정도 조사 ····· 40
<표4-12> 최선의 효도방법 의견 조사 ····· 42
<표4-13> 부모 봉양에 대한 의견 ····· 43
<표4-14>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 봉양 여부 ····· 45
<표4-15> 가족의 영속에 대한 의식조사 ····· 46
<표4-16> 조산에 대한 제사와 차례 지내기 ····· 48
<표4-17> 조상 숭배에 대한 의견 ····· 49
<표4-18> 제사 방법에 대한 의견 ····· 5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는 도덕성을 상실한 시대에서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다. 기계와 산업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성을 상실하면서 우리 사회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인간으로써의 상상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 살인을 해 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해 하는 모습들 속에서 양심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하며 도덕성 파탄을 걱정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양에서 뒤지지 않는 귀중한 효와 예를 가진 나라이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달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급격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시켰으며 고도의 산업사회를 이룩해 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물질 지상주의적 사고방식을 생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물질 만능 주의 사고와 인간 근본 행위의 덕목인 효 개념의 급격한 변화는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는 우리 사회에 적절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물밀 듯이 들어오는 서구문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선진문화라고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물질 만능 사상과 서구 개인주의 사상을 우리의 전통문화와 융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통 가치관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였다. 수천 년 내려오는 전통문화의 전통을 상실하게 되어 가치관의 혼란과 효 윤리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우리의 전통 윤리관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흔히 효라는 덕목은 몰락되기 쉽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구적 가치관이 현대를 지배하면서 효는 봉건적인 낡은 가치관의 유물처럼 도외시되기도 한다.[1)]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신세대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효의 사상을 봉건시대의 유교적인 삼강오륜의 일부분이므로, 현대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사상이라고 그들 중심의 편리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사회구조에도 크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의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날로 길어지는데 이들을 수용할 국가적·사회적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

1) 손인수,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문음사,1992), p.139.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은 효와 불효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혼자 살던 노모가 홀로 죽어도 뒤늦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은 입으론 "불효자식"이라고 통곡해도 마음속으로는 나만한 효자도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효와는 엄청난 의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라는 것은 그 민족의 주체적인 발전의 역량이요, 민족 전체를 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국가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효는 우리의 전통 가치 중 가장 으뜸의 덕목이다. 효의 중핵은 경애정신과 인간존중의 정신이고 그것은 인간형성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효는 모든 행동 율의 중행이 된다. 따라서 효는 우리에게 사람됨의 길 과 인간관계의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도덕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시대가 변하였다고 전통적인 효의 붕괴를 역사의 순리로만 보고 있어야만 할까? 전통적인 가치라는 것은 그 민족의 주체적 힘이기에 우리나라의 효를 대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의 전통 가치 중 으뜸인 효를 현대적으로 조명해 보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의 실천을 정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효 실천의 정립은 오늘날 산업의 사회화로 생성된 모순된 가치관을 없애고,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식과 전통적인 가치 속에서의 주체적 의식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자아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확고한 가치관으로서의 효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의 입시 위주 교육 풍토 속에서 덩달아 경쟁사회의 분위기 속에 젖어 들고 있으며, 지극히 현실적 어린이로 변하고 있다. 도시 어린이들은 물론 순진한 농어촌 어린이들도 배금주의 적이며, 타산적인 생리 속에서 훈훈한 인정에 접할 수 없고,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생활해 가고 있으며, 참된 가치관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효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초등학교에서 효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윤리인 효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효자 상에 대하여 고찰하고, 전통적인 효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효의 현대적 의의와 이의 실천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

2) 손인수, 앞의책, p.146.

Ⅱ. 이론적 분석

1. 효의 의미

동양사상에서의 효도의 '도(道)'라는 의미는 이성, 정신의 의미로서 움직임이 있는 길이요, 생각과 말, 행동을 하늘의 명에 따라 발휘하는 것이요, 자연의 이치와 사람에게서의 이치가 합치되었을 때 올바른 '도(道)'라고 보아 왔다. 즉 육체적·감각적 욕구에 따른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섭리에 따른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다.[3] 효도는 '효(孝)와 도(道)'를 합한 의미이며 효도란 부모를 잘 섬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리요, 자식이 부모에게 지성으로 받들어 모시는 효행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부자지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효경(孝經)의 개종명의편(開宗明義篇) 1장에서 「효라는 것은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이 생겨나는 바탕인 것이다. 사람의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일이야말로 효의 시작인 것이다. 몸으로 올바로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에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맺음인 것이다. 효라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데서 시작하여 다음으로는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다」[4] 여기서 효는 지덕요도(至德要道)로서 덕의 근본임과 동시에 모든 교육의 원천이라고 전제하고 자신의 심신 전체를 잘 보호 육성하여 도를 행하고 다시 효를 4등분하여, 첫째, 신체발부불감훼상(身體髮膚不敢毁傷) 하는 것. 둘째, 사친(事親) 하는 것. 셋째, 사군(事君) 하는 것. 넷째, 입신행도(立身行道)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5] 또한 유학에서는 효도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어버이를 높이는 대 효이고, 둘째는 어버이를 가능한 욕되게 하지 않으며 셋째는 어버이를 잘 봉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6] 이는 지식이 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그 이름과 덕행으로 인하여 어버이의 훌륭함이 빛나게 함을 최선으로 보고, 적어도 품행이 방정하여 어버이께 신체적, 정신적 안락함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

3) 황하택, 삶과 사랑의 한국인 (서울: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1984), p.99
4) 김학주 역, 忠經·孝經 (서울:명문당,1986), p.132.
5) 황하택, 앞의책, p.99.
6) 황하택, 위에책, p.100.

또한 맹자가 지시하는 인간의 불효란

첫째, 게을러서 생업에 태만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행위,

둘째, 도박이나 술을 좋아하여 건강을 해치고 가산을 탕진하는 행위,

셋째, 돈만 알고 처자식만을 좋아하고 부모를 돌볼 줄 모르는 행위,

넷째, 눈과 귀의 감각적인 만족만을 채우기 위하여 부모까지 욕되게 하는 행위,

다섯째, 이성을 읽고 싸움질이나 좋아하고 성질이 사나워서,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자를 들고 있다.7)

즉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굶주리거나 향락에 도취되어 가정, 자신을 돌봄이 부족한 사람은 모두 불효자라고 함으로써 윤리·도덕적 인간의 행실을 중요시했음을 볼 수 있다. 삼강오륜에서도 부위자강, 부자유친의 기강을 강조하며 군신관계, 부부관계, 장유관계, 붕우관계 등과 인간이 행동하고 생각해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다.

위에서 밝힌 내용들은 전통적인 효의 바탕이요, 근본이다. 수많은 조상, 옛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로 보았다.

효는 어버이의 지극한 내리 사랑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은혜를 갚는 보은의 의미이다. 이는 인위적이거나 타율적인 행위가 아니다. 자율적인 인정의 행위이다. 부자자효(父慈子孝)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듯이, 효의 본질은 부모의 한없는 내리 사랑에 대한 보은의 정이 부모에 대한 극진한 효도로서 발현(發顯)되는 것이다. 또 효란 자신에서 시작하여 일생을 구성하는 원리이다. 이것은 내가 가장 귀하며, 나를 생육해 주신 부모에 보답하는, 내가 부모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여 부모에 봉양하며 자식이 늙어서 다시 보호받을 원리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전통적인 효의 개념은 친자간에 가정윤리의 근본으로 형성된 원초적인 상호관계를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규율하는 일종의 질서인 것이다. 질서의 의미가 확대되어 윗사람을 섬기는 질서의 원리인 경로사상을, 나라를 다스리는 애민사상을, 국가와 백성간의 윤리인 충의 윤리를 지탱하는 의미로까지 사용되었다.

사회 형태의 변화,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뿌리사상에

7) 황하택, 앞의책, p.101.

도 변화가 돌출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이익 사회화되어 가고 신분질서의 파괴 등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에서 효의 바탕에 너무 급격한 이변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이 지켜 왔던 효의 실천덕목을 현재의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뿌리는 영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뿌리는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요, 사상이며, 살아남을 최선의 방법이고, 삶의 도리이다.

2. 효 개념의 전개

1) 효 개념의 역사적 배경

효는 도덕을 행해야 할 것이며, 부자지간은 천성지친(天性之親)이라 하였으므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천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륜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8]. 그리고 수렵민족이나 어로사회(漁撈社會)에서는 연장자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유목민사회나 수렵사회에서는 노인은 그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뿐이므로 조상 존중사상가 노인 공경사상이 발원되지 않았다.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생활의 정착을 찾게 되고 부터 효는 집단의 안녕과 단결을 위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늙은 농부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집단의 의식이 노인에 대한 공경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은 나아가 조상에 대한 공경으로 연결되고 이는 사직(社稷)이라는 글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조상신에 대한 숭배의 차원으로 끌어 올려지게 된다. 집단적 농경사회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가 발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효의 관념이 크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농사의 풍흉(豊凶)은 사람이 아닌 천신이 좌우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곧 하늘에 대한 숭배로 이어졌다. 효는 죽은 자에 대한 효성의 제를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조상의 영혼은 곧, 나와 통한다고 보았다. 효는 조상과 후손에 이어지는 수직적 관계의 연속선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와 맹자의 시대는 주나라 말기 춘추 전국시대였다.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기존의 사회체제의 제도적 중심이었던 주 왕실의 권위가 흔들렸던 때이다. 한마디로 무도사회

8) 임균택, 韓思想과 倫理 (서울:형설출판사,1992). p.366.

였다. 권력이 집중된 귀족들은 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신하가 왕을 시역(弑逆)하는 등 존중의 예(禮)는 찾을 수가 없었다. 제후국간에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침공전은 끝이 없었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한순간 신하로 우대하여 받아들이는 등, 신분 변화가 심했던 시대였다. 이러한 사회 양상 때문에 백성들의 민생고는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가중되었다. 백성들은 날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고 사회의 기강은 땅에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주의 봉건사회를 유지시켜 왔던 행위규범으로서의 예는 그 준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혼란한 시기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배욕에 사로잡힌 봉건귀족들의 횡포를 막아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 국가의 신뢰도를 높여 마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禮)」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라고 공자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공자는 예의 정치와 덕의 정치를 생각해 내었던 것이다. 공자는「나라를 다스릴 때 따르지 않는 자를 형벌을 가하여 통치하면 백성은 형벌을 면하나 부끄러워하는 바가 없음을 말하니, 비록 감히 악한 짓을 하지는 못하나 악한 짓을 하려는 마음이 일찍이 없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스리기를 덕으로 하고 예로서 바르게 한다면, 백성들은 선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또 선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9]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공자의 사상은 맹자가 중심이 되어 유학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유학의 기본적 사상은 인성론이다. 인성론은 모든 행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예라고 하였으며, 또 이는 예를 실현하는 가능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지학(知學)이 아닌 행학(行學)이다 할 수 있다. 자연의 이치를 분석하고, 원리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이 도에 어긋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도학적인 성격이 윤리학이다.

유학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제기하는 모든 행위의 규범과 그 규범 실현의 가능 근거를 대상으로 하는 학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에서의 인간의 행위규범이라 함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며, 윤리이며, 예를 말하는 것이다. 즉 행위규범으로서의 예는 인간이 일상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사회생활에서의 영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밟고 따라야 하도록 만들어진 행동 제약의 외적 객관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유학을 도학, 윤리학 또는 예학이라

9) 성백효 역, 論語集註 (서울:전통문화연구원,1993), p.33.

고 불려지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간 상호간에 필요한 덕목은 수 없이 많을 수 있으나,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실함, 사랑, 믿음성, 의로움, 조화, 평화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덕목은 모든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덕목이며, 일차적으로 부자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가에 있어서는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라는 다섯 개의 덕목을 인간의 도리를 정하고, 이를 오륜으로 집약하였다. 이 오륜은 혈연과 비 혈연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혈연에 기초한 친자관계가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효 관념은 유교적 행위규범의 실천원리로서 생성되었고 다른 도덕원리의 모태(母胎)가 됨을 알 수 있다.

2) 유교에서 보는 효(孝)

「효(孝)」자는 늙은 「노(老)」자에 아들 「자(子)」를 합의한 문자로 연하자인 자식이 노장자인 부모를 업어 모신다는 뜻이다. 효는 부모와 자식간에 형성되는 원초적 관계로부터 출발되는 윤리이기 때문에 이를 천륜이라 부른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본능으로서의 사랑이 곧 자의 근원이고, 효는 그러한 부모의 자애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보은의 정신이다.

효경(孝經)에서는 근신하여 완전한 인격자로서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해 가며, 어버이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효라고 지적하고 있다.[10] 따라서 효라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를 잘 봉양하기보다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지성을 다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도 진정한 효를 「지금의 효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는 것인 줄만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개나 말에게도 모두 길러 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11]라고 하였다. 공자는 무릇 효는 덕의 근본으로서 모든 가르침이 효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효의 원리로서 효경(孝經)을 이룩하였다. 효는 선사 부모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야 하는 자식의 도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육신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공경해야 한다는

10) 김학주, 앞의책, p.146.
11) 성백효 역, 앞의책, p.38.

인간 도리의 최고의 덕목이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본능이 곧 자의 근원이다. 효는 부모의 자애에 대한 보은의 정신이다. 본래 효는 내적인데서 외적인대로 확대되는 과정을 취한다. 내가 보모를 섬긴다는 마음가짐이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마음의 태도는 다 효의 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러기에 효는 인간존중과 경애정신의 바탕이다. 효의 가장 중심적인 정신은 사랑과 공경이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하여도 사랑이 깃들이지 않으면,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자하(子夏)가 효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 부형에게 일이 있으면 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술과 밥이 있으면 부형〔선생〕을 잡숫게 하는 것을 일찍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12]라고 답하였다. 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 담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타고난 착한 성품과 천이에 따르는 것이다. 효자로서 깊이 사랑이 있는 자는 반드시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는 자는 반드시 유순한 빛이 있고, 유순한 빛이 있는 자는 반드시 공손한 용모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길 때는 오직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를 대할 때는 사랑과 공경으로 대하라는 뜻이 되겠다. 효경에는 예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일 따름이라고 하였다. 경은 모든 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효는 인(仁)을 실천하는 원천이다. 그래서 공자의 교육은 이론적으로는 인도이며, 실제적으로는 효의 중심의 도덕이 된 것이다. 공자는 「효라는 것은 행인의 근본이다.」라고 말하였고, 효경(孝經)은 「무릇 효가 덕의 근본이다. 모든 가르침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13] 효는 인(仁)의 근본으로 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깊게 해주는 인간 본성이다. 효는 제와 더불어 인(仁) 즉 사랑을 실천하는 원천이며, 따라서 효제(孝悌)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할 수 있다. 진정한 효는 가장 인간적인 사회적·윤리적 인도(人道)라고 할 수 있다.

공자의 제자 유자(有子)가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효하고, 공경스럽고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무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다.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

12) 성백효 역, 앞의책, p.39.
13) 손인수, 앞의책, p.127.

효와 제라는 것은 그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14]라고 하였다. 여기서 유자는 인간의 근본이 되는 효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효제를 확립하고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정자(程子)도 말하기를 「효제는 순한 덕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다시 거스르고 상도(常道)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은 효와 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거스르지 않아 훗날 그 나라에 근본이 설 수 있어 질서가 바로 잡혀 도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효는 인과 도의 실현의 기초이자 뿌리이다. 이것이 잘되지 않으면, 모든 덕의 실현이 어렵게 된다. 효는 인간이면 실천해야 하는 근본인 것이다. 그래서 효는 인과 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윤리이다.

전통 유교적인 효의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효의 특성은 부모를 모실 때 항상 복종하는 자세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효도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다. 이 말은 부모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이지, 맹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순종하는 태도 속에는 부모를 공경히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즉 순종은 부모의 마음을 살핀 뒤에 허락을 받아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생존시나 부모가 사후에도 부모의 유지를 잘 받들고 가풍을 잘 이어가는 효도로 생각하였다.

두 번째 효의 특성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천성지친(天性之親)이라 하여 하늘에서 맺어진 것으로 여겨 왔으며,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니, 여기에는 인간의 자연한 본성이 근거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적이며 어느 누구도 이런 신분적 관계를 함부로 단절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15]

세 번째 효의 특성은 부모의 뜻과 행함은 절대적이었다. 부모의 뜻과 행함은 가치 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자식은 조건 없이 좋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합리성을 논할 수 없는 절대성이 항상 따르고 있다. 효는 실제로 사람들의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되어 왔던 가치이자, 국가적 관심과 후원 하에 교육을 통해 가르쳐졌던 관념이요,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테마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옛날에는 굉장했던 것이다.[16]

---

14) 성백효 역, 앞의책, p.18.
15) 손인수, 앞의책, p.125.

효의 관념은 역사적으로는 자연적 소산에서 혈연으로, 가족과 종족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질서의 규범이다. 효는 성(誠)으로 애친(愛親)을 이루고 사랑으로서 어버이를 섬기는데 최선의 힘을 다한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부모와 자와의 관계는 가족이라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의 개체로 이루어지며, 효는 이 가족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등,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자식의 윤리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는 아니며 근원적으로 자식들의 내면적인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다.

효경(孝經)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효라는 것은 하늘의 법도이며 땅의 의리이고 백성의 행실이 되는 것이다」[17]라고 하였듯이, 부모와 자와의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일종의 자연 법적인 기초를 가진 관계규범으로 풀이함으로써, 효를 개별 개념으로부터 보통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래서 효는 모든 덕의 기본적인 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자연 법적인 기초를 내포하면서 통치 원리로서 확대되었다. 효 개념은 보편적인 정치적, 사회적 규범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이념적으로는 부에 대한 자식의 효가 일반적,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무가 아님을 뜻한다. 이는 효경의 간쟁편(諫諍篇)에 「의롭지 않는 일에 당면하면 곧 자식으로서의 아버지에게 다투어 간(諫)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롭지 않는 일에 당면하면 곧 그에 대하여 다투어 간하여야 한다. 아버지의 명령만을 좇아가고서야 어찌 효가 이룩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듯이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충·효의 보편적 원리는 공자가 「진실로 만일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면, 신하가 신하 노릇을 못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면,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는 들 내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속에 군·신·부·자가 각각 자기의 명분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서 더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군·신·부·자가 절대적이며 보편적 천지경(天之經)에 준할 것을 당위로 하면서도 그 당위적인 것의 의미가 각각의 내면적인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코 군신 혹은 부자의 각각의 의무관계가 상호 쌍무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점이 바로 권리와 대응관계가 있는 현대적인 법적 의무와 틀리는 측면이다.

---

16) 제주도교육위원회, 삶의 원리와 도덕교육 (제주: 제주도교육위원회,1988)
17) 김학주 역, 앞의책, p.149.

논어의 자로편(子路篇)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숨겨 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니, 정직함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18]와 같이, 부자관계는 천리와 인정의 관계임을 뜻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덕성을 닦고 밝히는 것이 다름 아닌 조상을 섬기는 것이요, 또 하늘을 섬기는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조상의 뜻을 잘 계승하고 그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 효라 하였다. 천·지·인의 삼재 가운데 인간이 존귀하다는 관념은 인간의 존중, 자아의 발견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의 관념도 인간자아의 성실한 내면성에 근거한 행위라야 효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서양의 윤리는 이성을 규범으로 하여 전개되는데, 동양의 윤리는 효를 규범으로 해서 모든 윤리적 규범이 전개된다. 이것은 「인간성의 요람」[19]이 되게 하는 조건이 된다. 고래로부터 효의 형식은 생육에 대한 감사, 부모봉양, 부모양지, 자신의 보호, 부모에 순종, 부모공경, 간언의 효, 부모시봉, 입신양명, 상제예 등 10개의 효로 대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덕목들은 모두 추상성의 도가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하여 효는 부모에 예속되고 자아의 확대 또는 사회적 성숙이 중단된 것으로써 개인의 행복은 물론 민주화와 성숙사회 및 대동사회 건설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효의 본질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예로 화합하며, 부모를 위하여 봉사하고 합리적 명에 순종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행을 행하며 자신의 근본을 자각하고 부모를 위하듯 전체를 위하기를 강조하는 덕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자아가 확대된 사회적 성숙이 한국적 표현으로써 인간의 중요한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성숙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불교에서 보는 효(孝)

불교의 경전(經典)은 이른바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워지는 바와 같이 그 종류와 분

---

18) 성백효 역, 앞의책, p.265.
19) 손인수,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서울: 문음사,1992), p.22.

량이 방대하다. 그 중에는 고타마 싣달타가 직접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진경도 있으나 후세에 기록한 위경(僞經)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효 사상과 관계가 깊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위경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듯하나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고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불효론을 고찰하므로써 불교에서 보는 효를 살피고자 한다.

이 경전에서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무거운지를 잘 설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불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불효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일일이 지적하고 있다. 불효의 사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부모에게 대한 불공(不恭)이다.

둘째, 부모에 대한 봉양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셋째, 고향을 등지는 것이다.

넷째, 좋지 않은 친구와 사귀고 허망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다섯째, 형제간에 불화하여 싸우고 욕설하는 것이다.

여섯째, 성격이 불량하고 포악하여 남과 잘 다투는 것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에서 지적된 불효는 모두 오늘날의 가정과 이웃과 생활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례들이다. 다만 존속(尊屬)을 살해하거나 폭행하거나 상해하는 행위에 관하여 특별히 강조하거나 지적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경전이 성립되던 당시에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20]

4) 전통적 효의 문제점

효경(孝經)에서 서술하는 효의 교육은 부자지간의 윤리를 통한 가정의 화목과 번영을 중시했다. 더 나아가 효 중심으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국가의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전통적인 효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도덕적 의무에 구애된 규범적 구속의 효행이 많아 졌고, 「출천지효(出天之孝)」라고 하여, 몸을 바쳐 효를 실천하는 자를 최고의 효행

20) 지교헌, "불효란 무엇인가?", 효사상국제학술회의 『효사상과 미래사회』한국정신문화원, 1995, pp.166-168요약.

이라고 칭송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부모를 위해서는 몸을 바쳐 효를 하는 자만이 부모에 최고의 효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효행의 근본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고 알뜰하게 모시는 것인데, 이렇게 모시는 일은 오히려 감소하고, 부모의 사후 시묘나 봉제사(奉祭祀) 등 외형적 효에 큰 비중을 두는 효의 형식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관념 속에 전통적인 효 윤리는 현대인에게 생활윤리로 적용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었다. 즉 전통적인 효 윤리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대와 다른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여건에서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전통적인 효 윤리는 과거 봉건적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과거 봉건적 체제하에서 전통적 가족관계는 수직적 질서를 중요시하였다. 세대관계 및 부부관계에서도 뚜렷한 위계질서가 성립된 종속 관계였다.

이는 자연적으로 평등관계가 아닌 상하의 불평등관계가 성립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일방적인 효가 높이 평가되었다.

신라 경덕왕 때, 향득(向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몹시 흉년이 들어 그의 아버지가 굶어 죽게 될 지경이 되자, 향득은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봉양했다는 이야기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효로 추앙되었다.

이러한 효행은 「삼국유사」 효선(孝善)편에 동순이라는 사람이 가난하여 살기 어려워 노모의 밥을 빼앗아 먹은 자식으로 인하여 노모를 봉양하기 어렵다하여 어린 자식을 산에 묻으려고 했다는 이야기, 병을 앓던 어머니에게 겨울날 죽순을 구해 드려 병이 낫게 하였다는 맹종의 이야기 등 이러한 효의 사례들은 아마 그 시대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효라기보다는 특수에 가까운 효라 할 수 있다. 이 설화에서 효를 위한 행동은 그 행위가 선하든 악하든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효자, 효녀 비를 나라에서 세워 줄만큼 용인되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식을 생매장을 하려고 한 부모의 행위는 살인 미수이며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러나 과거의 효 관념에 있어서는 다리 살을 베어 봉양하는 것도, 자식을 생매장을 하는 것도 모두 용인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효도가 과거의 윤리생활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나,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효의 현대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전통사회의 효는 그 실천 방법에 있어서 사고와 판단을 함에 있어 합리적 이성적 방식으로 생각하기보다 부모의 말씀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요구되었고, 극진한 효도는 부모의 명령에 의한 행동으로 여겼으며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비추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전통사회의 효행 자들의 효행과 보통 사람이 갖고 있던 효 의식은 효경이나 논어의 효 사상을 실천 하였다기보다는 기행적이고, 신비적인 효행사례가 일반인들에게 강요되었다.

현대의 가치관과 비교해 보면 전통사회의 효는 부모에게 아무나 할 수도 없거나 자식의 극단적이고 자해적인 희생을 강요한 효행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 非凡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극단적 방식으로 하는 효행이 일반적인 윤리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통 사람이 실천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없는 효 개념은 실천 과정에서 자연스러워야 할 효도가 변질되어 이상한 효도가 되어 합리적이지 못한 효도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전통사회에서의 이상적 도덕규범으로서의 효 개념은 강요적임이 일반화되었기에 현대인들에게 별로 설득력을 갖게 하지 못한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의 자해가 묵인되는 효는 사실상 현대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전통사회의 효행이 보편보다 특수가 강요되었기에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과 관련되어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효는 부자간에 서로 부담을 주지 않은 실천 가능한 효의 개념인 것이다.

3. 효의 현대적 의의

민주주의란 인간 존중을 표방(標榜)하는 휴머니즘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고,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는 일종의 생활규범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원리가 민주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민주적 사회생활을 하느냐 않느냐는 국민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민주주의적 이념이 국민의 전체생활 양식에 반영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주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이 민주사회의 규범이라면, 효의 실천도 민주사회의 규범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효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모든 국가의 제도와 정치, 국민의 공동체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보편적 윤리규범으로 자유와 평등사상을 민주주주의적 기본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인간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사상인 자유와 평등사상이 얼마나 보장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칸트(Kant)에 의하면 최고선은 도덕적인 인간이 그 도덕성에 비례한 행복을 헌신적으로 동반하고 있다고 상징되는 상태이다.[21] 다시 말하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유기적 내재적 통일이며, 이는 자유와 평등의 통일을 의미한다.

도덕과 행복의 조화적 통일로 한 인간의 윤리적 최고선을 실현하듯이 우리 민족의 독특한 효의 문화를 전통적인 입장과 민주적 입장에서 유기적(有機的)・내재적(內在的) 통일을 이룰 때, 새로운 현대적인 효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조화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조화의 실현은 대립물의 모순과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로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22] 이와 같이, 효실천에 있어서도 보편과 특수의 유기적 통일・다양의 종합적 통일의 실현시킨 수 있는 한사람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효의 실천에서 한사람은 가정에서의 부(父), 다(多)는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친족이며, 현대적인 효의 민주적 요소로서의 작용은 하나(一)와 다(多)의 유기적・내재적 통일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효도 중용(中庸)의 한 형태이다. 중용은 그 때, 그 상황에서 가장 타당한 선택과 가장 타당한 행동을 의미한다.[23] 효의 유기적・내재적 통일이라 함은 중용적인 행동으로 덕(德)이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덕은 중용을 목표로 하는 성질을 갖지 않으면 안 된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1세기 동안 급변한 사회구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정치구조면에서 중앙집권적 봉건사회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변하였으며, 이러한 변동은

21) 이윤수, 서양철학사 (서울:법문사,1992). p.469.
22) 이윤수, 위의책, pp. 289-290
23) 이윤수, 앞의책, p 105.

가치체계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등을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문화적 변혁을 유발케 되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정이 대부분 아직도 전통성과 현대성이 혼재(混在)하는 문화적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이중구조는 가정에서 윤리덕목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상호 대립, 갈등, 혼란 등을 일으켜, 부모와 자녀간의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되었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자기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사회의 효는 그 실천에서 특수와 보편의 요소를 찾아 유기적 통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효 사상과 시대적 감각에 재정립된 효 사상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화(文化)는 서구사회의 문화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전통적으로 효를 인간사회의 영속적 기본윤리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효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 생활을 보람되게 하는 당의적(當宜的) 질서(秩序)로 여겨 왔다. 효는 생활을 제어(制御)하는 질서로서의 규범적 성격을 지녔다.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정성껏 섬겨야 한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근원적 사상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효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특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생긴다. 효를 바탕으로 성립(成立)된 윤리적 요소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민주사회의 효를 사회의식 차원에서 자기 이외의 타자(他者)를 존중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실제행위의 차원에서 타인(他人)에 대한 인격존중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자기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이 남의 부모를 무시할 수 없고, 남의 부모를 무시할 수 없다면 그 자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효 윤리를 일방적이거나 상향성의 체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종적(縱的)으로 연결시켜 사회적 측면과 합일(合一)되게 구안해야 할 것이고, 횡적(橫的)으로는 사회관계의 윤리로 승화되어 사회적으로는 서로 존경하고 우애롭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호혜 평등원리 또는 우의원리(友誼原理)로 표현되어 부부간에는 화목으로 사랑의 윤리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효가 자손을 사랑하는 하향(下向)으로 나타낼 때는 부자관계 및 부부관계를 통한 자애(慈愛)의 돈독화(敦篤化)가 될 수 있다.

오늘날의 가족의 생활은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에 두고, 가족 구성원들의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적용되는 작은 사회가 이룩되어야 한다. 즉 과거의 가정의 효는 절대 권위 소유자인 부의 차별적 특수성을 강조하였으나, 오늘날의 가정의 효는 민주적 평등원리에 기반을 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사회의 자유평등사상에는 반드시 자율과 책임이 따르기에 가정에서 가족의 임무수행이 대단히 중요하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수행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효는 차별성(差別性)이 아닌 부자간에 규범적 통합규범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효는 민주사회에서 부합되어 실천되려면 과거의 차별적 전통적인 효의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관계를 적어도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효의 유기적·종합적 통일이며, 중용이다.

효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예(禮)로서 화합하며, 부모를 위해 봉사하고, 합리적인 명(命)에 순종하며,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행(善行)을 행하며, 자신의 근본을 자각하고 부모를 위하듯 전체를 위하기를 강조하는 덕목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자아가 확대된 사회적 성숙의 한국적 표현으로서 인간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부자자효(父慈子孝)의 관계는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니, 여기에 인간의 본성(本性)이 근거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인위적(人爲的)아니라 자연적(自然的)이며, 여기에 또한 인간의 본성인 보편적 동정심, 즉 인(仁이)은 좁은 의미로 사랑이요, 넓은 의미로는 모든 덕(德)의 근원이다.[24] 부자자효는 어버이의 내리 사랑과 자식의 위로 사랑을 동시에 중시하는 개념이며, 부자간의 이루어지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사회의 효에 대한 본질은 부모 자식간에 어느 한쪽의 다른 한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야하는 의무가 아니라 양쪽 다 서로 사랑과 공경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은 자율적이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일상적으로 처리함을 중시하는 사회이기에 현대사회의 효는 인간의 내심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효라고 할 수 있다.

---

24) 손인수,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문음사, 1996), p. 125.

4. 초등학생들의 효 의식 측정을 위한 효행동기 분류

지금까지 효에 관한 많은 문헌이 있었지만 효개념의 차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기한 것은 거의 없었다. 효 차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호의 의미 또는 개념을 모도 포괄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측정된 효의 개념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효의 의미를 파악하는 한가지 방법은 앞에서 논술한 효행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효행을 하는 이유들이 효에 관한 문헌에서 강조하는 효행내용과 상합(相合)할 경우에는 효의 내용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문헌에서 강조된 주요한 효의 개념 및 행위와 관련된 용어를 식별해야한다.

먼저 중국의 효에 관한 고전과 미술 그리고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포상이 된 효행상 수상자들에 관한 기록에 나타난 효행 이유들을 조사해서 11가지 가장 중요한 효행이유를 식별하였다. 한국의 효행상수상자는 "삼성효행상" 수상자 250명을 포함한 성인 남녀들이다.[25] 이들 효행수상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11개 항목들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 담긴 효행이유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한국의 효행사례가 현시대의 인물들이 실제 한 효행 이유와 내용을 보여주는 반면, 중국의 자료에는 설화(說話)나 전설적인 예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11가지 효행 이유 항목들은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가장 널리 인지되는 효행이유이고 또 중요시되는 효의 내용이다.[26]

이 항목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책임, 부모를 위한 희생, 부모에 대한 동정, 가족의 화합, 부모에 대한 보은, 못다한 일에 대한 보상, 종교적 신념, 이웃 간의 조화, 가족의 영속 및 가족의 체면유지이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다. 즉 효의 내용이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들 11가지 동기들 이외에 2가지 동기를 더 추가하였다. 새로운 동기 항목들은 "부모에 대한 애정"과 "재산의 상속"이다. 즉 자녀들은 그들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효의 이유 및 내용을 지적한 13개 항목들 또는 변인들은

---

25) 성규탁, 현대한국인의 효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9호 1990 pp.28-41.
26) 성규탁, 앞의책. pp.28-41.

다음과 같다.

①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 〔존경〕

② 부모를 위한 육체적 및 재정적인 희생을 하는 것 〔희생〕

③ 부모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책임〕)

④ 부모에게 진 빚을 갚는 것 〔보은〕

⑤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의 영속을 도모하는 것 〔가족영속〕

⑥ 부모에 대한 사랑 및 애정을 표하는 것 〔애정〕

⑦ 늙고 병든 부모를 동정하는 것 〔동정〕

⑧ 종교적 교의에 따라 부모를 모시는 것 〔종교교의〕

⑨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성원들이 화합하는 것 〔가족화합〕

⑩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부모를 부양함으로써 이루려는 것 〔보상〕

⑪ 부모의 재산을 상속함으로 부모부양 하는 것 〔재산상속〕

⑫ 부모를 중심으로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웃화합)

⑬ 부모를 위해 가족의 대외적인 체면을 유지하는 것 〔가족체면유지〕

이상과 같이 문헌과 실증적 연구를 통해 파악된 13개 항목들을 보면, 한국인들이 부모에게 효행하는 이유들은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효행 이유는 이들 여러 항목들을 종합해야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효행 이유의 차원은 이들 여러 항목들 또는 변인들을 기초로 분석하여 이상을 유형화하면 ① 부모님에 대한 존경, 애정, 동정하는 마음 ② 가족성원의 화합과 이웃에로의 확대 ③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 희생, 책임과 임무 ④ 가족의 영속과 돌아가신 부모님 및 조상에 대한 봉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방법

1. 조사 대상의 표집

1) 표집 대상 : 제주도내 초등학교 6학년학생 642명

2) 표집대상 학교 : 가. 제 주 시 4개교(동광, 남광, 신제주, 신광초등학교)

나. 서귀포시 4개교(서귀포, 서귀중앙, 서귀서, 동홍초등학교)

다. 북제주군 4개교(고산, 한림, 김녕, 세화초등학교)

라. 남제주군 5개교(안덕, 대정, 동남, 성읍, 한마음초등학교)

< 표 3-1 >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도

지 역	돗 수	비 율(%)
제주시	159	24.77
서귀포시	157	24.45
북제주군	163	25.39
남제주군	163	25.39
합 계	642	100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표집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배경 변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 표 3-2 >와 같다.

< 표 3-2 > 조사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배경변인	변인구성	변인크기	퍼센트(%)	계
1.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8	74.45	642
	같이 살고 있다	164	25.55	
2.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	3.58	642
	같이 살고 있다	619	96.42	
3.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8	47.98	642
	있다	334	52.02	
4. 남동생, 여동생	없다	300	46.73	642
	있다	342	53.27	
5. 성별	남자	357	55.96	638
	여자	281	44.04	
6.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8	33.05	357
	장남	239	66.95	
7.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8	38.43	281
	장녀	173	61.57	
8. 종교	불교	255	39.84	640
	기독교	128	20	
	천주교	95	14.84	
	기타	17	2.66	
	무교	145	22.66	

2. 조사 도구

자작 설문지 작성은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물과 연구자가 평소에 생각했던 사항을 첨가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① 부모에 대한 존경, 애정, 동정하는 마음 ② 가족성원의 화합과 이웃에로의 확대 ③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 희생, 책임과 임무 ④ 가족의 영속과 돌아가신 부모님 및 조상에 대한 봉사 덕목으로 나누어 각각 4-6개 문항씩 작성하였다.

3. 조사 결과 처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의 수집된 자료들은 SPSS(Statistical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반응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아동이 다니는 학교 소재지별, 남녀별, 출생순위별, 가족상황, 종교, 컴퓨터 이용시간 등 배경변안별 유의한 차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Chi- Square(x^2)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Ⅳ. 조사 결과의 해석 및 고찰

1. 부모님에 대한 존경, 애정, 동정하는 마음에 대한 분석

1)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 표 4-1 > 과 같이 " 부모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가 58.26%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편이고 친구들에게 가끔 자랑한다."가 28.82%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x^2-value=16.42, p<.00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고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응답비율이 남자가 64.99%, 여자는 49.47%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을 존경하는 편이고 친구들에게 가끔 자랑한다." 응답비율이 남자가 23.25%, 여자는 35.94%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믿고 있는 종교종류별(x^2-value=27.2, p<.01)로도 고도의 유의차를 보여 "부모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응답비율이 불교 55.69%, 기독교 51.56%, 천주교 60.0%, 기타 70.59%, 무교 66.21% 비율로 높게 나타나고, "부모님을 매우 존경하고 친구들에게도 자주 자랑한다"의 비율은 불교 33.73%, 기독교 32.82%로 타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도내의 지역 간,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형제의 유무, 장남, 장녀여부 등의 변인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같이 살고 있는 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응구분별에 있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의 반응이 1.40%로 부모님을 미워하는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이혼 및 가정 형편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기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표 4-1 >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부모님을 매우 존경하고 친구들에게도 자주 자랑한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편이고 친구들에게 가끔 자랑한다	부모님을존경하기는하지만친구들에게자랑하지않는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전체		642(100.0)			74(11.53)	185(28.82)	374(58.26)	9(1.40)
지역별	제주시	159(24.77)	7.54	0.58	19(11.95)	50(31.45)	88(55.35)	2(1.26)
	서귀포시	157(24.45)			19(12.10)	49(31.21)	87(55.41)	2(1.27)
	북제주군	163(25.39)			14(8.59)	51(31.29)	95(58.28)	3(1.84)
	남제주군	163(25.39)			22(13.50)	35(21.47)	104(63.80)	2(1.23)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8(74.45)	3.20	0.36	61(12.76)	133(27.82)	277(57.95)	7(1.46)
	같이 살고 있다	164(25.55)			13(7.93)	52(31.71)	97(58.26)	2(1.22)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58)	2.58	0.46	2(8.70)	4(17.39)	17(73.91)	0(0.0)
	같이 살고 있다	619(96.42)			72(11.63)	181(29.24)	357(57.67)	9(1.45)
형, 누나, 언니,오빠	없다	308(47.98)	5.11	0.16	44(14.29)	85(27.60)	176(57.14)	3(0.97)
	있다	334(52.02)			30(8.98)	100(29.94)	198(59.28)	6(1.80)
남동생, 여동생	없다	300(46.73)	2.70	0.44	28(9.33)	89(29.67)	179(59.67)	4(1.33)
	있다	342(53.27)			46(13.45)	96(28.07)	195(57.02)	5(1.46)
성별	남자	357(55.96)	16.42	0.0009***	38(10.64)	83(23.25)	232(64.99)	4(1.12)
	여자	281(44.04)			36(12.81)	101(35.94)	139(49.47)	5(1.78)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8(33.05)	2.19	0.53	9(7.63)	29(24.58)	78(66.10)	2(1.69)
	장남	239(66.95)			29(12.13)	54(22.59)	154(64.44)	2(0.84)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8(38.43)	3.90	0.27	10(9.26)	37(34.26)	60(55.56)	1(0.93)
	장녀	173(61.57)			26(15.03)	64(36.99)	79(45.66)	4(2.31)
종교	불교	255(39.84)	27.20	0.0072**	27(10.59)	86(33.73)	142(55.69)	0(0.0)
	기독교	128(20.00)			19(14.84)	42(32.81)	66(51.56)	1(0.78)
	천주교	95(14.84)			15(15.79)	20(21.05)	57(60.00)	3(3.16)
	기타	17(2.66)			0(0.0)	5(29.41)	12(70.59)	0(0.0)
	무교	145(22.66)			13(8.97)	31(21.38)	96(66.21)	5(3.45)

*** $p < 0.001$ ** $p < 0.01$

2) 부모에 대한 은혜

부모의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는 영역의 응답자 반응은 <표 4- 2 >와 같다.

나를 낳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71.42%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가 24.76% 나타났으며 "고마운 마음은커녕 원망스

럽다"는 의견도 0.47%를 보였고, "고마운 마음도 원망스런 마음도 없다"도 2.35%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4-2 > 부모의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매우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고마운 마음은커녕 오히려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고마운 마음도 원망스런 마음도 없다
전체		638(100.0)			462(72.41)	158(24.76)	3(0.47)	15(2.35)
지역별	제주시	158(24.76)	5.23	0.81	110(69.62)	42(26.58)	1(0.63)	5(3.16)
	서귀포시	156(24.45)			119(76.28)	33(21.15)	0(0.0)	4(2.56)
	북제주군	161(25.24)			121(75.16)	36(22.36)	1(0.62)	3(1.86)
	남제주군	163(25.55)			112(68.71)	47(28.83)	1(0.61)	3(1.84)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4(74.29)	3.18	0.36	346(73.0)	117(24.68)	1(0.21)	10(2.11)
	같이 살고 있다	164(25.71)			116(70.73)	41(25.0)	2(1.22)	5(3.05)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1)	3.10	0.38	14(60.87)	9(39.13)	0(0.0)	0(0.0)
	같이 살고 있다	615(96.39)			448(72.85)	149(24.23)	3(0.49)	15(2.44)
형, 누나, 언니,오빠	없다	305(47.81)	0.65	0.89	219(71.8)	76(24.92)	2(0.66)	8(2.62)
	있다	333(52.19)			243(72.97)	82(24.62)	1(0.30)	7(2.10)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9(46.87)	6.82	0.08	213(71.24)	82(27.42)	0(0.0)	4(1.34)
	있다	339(53.13)			249(73.45)	76(22.42)	3(0.88)	11(3.24)
성별	남자	354(55.84)	4.76	0.19	249(70.34)	97(27.40)	2(0.56)	6(1.69)
	여자	280(44.16)			211(75.36)	59(21.07)	1(0.36)	9(3.21)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7(33.05)	3.51	0.32	89(76.07)	26(22.22)	0(0.0)	2(0.56)
	장남	237(66.95)			160(67.51)	71(29.96)	2(0.84)	4(1.69)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8(38.57)	2.43	0.49	80(74.07)	26(24.07)	0(0.0)	2(1.85)
	장녀	172(61.43)			131(76.16)	33(19.19)	1(0.58)	7(4.07)
종교	불교	254(39.87)	17.37	0.14	186(73.23)	66(25.98)	1(0.39)	1(0.39)
	기독교	128(20.09)			101(78.91)	23(17.97)	1(0.78)	3(2.34)
	천주교	94(14.76)			64(68.09)	27(28.72)	0(0.0)	3(3.19)
	기타	17(2.67)			11(64.71)	6(35.29)	0(0.0)	0(0.0)
	무교	144(22.61)			99(68.75)	36(25.0)	1(0.69)	8(5.56)

지역별, 성별, 종교 등 모든 변인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매우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반응이 87.91-50.0%, 고마운 마음을 가지

고 있는 편이라는 반응이 40.0-17.5%로 많게 나타났다. 반면 장남 67.51%, 장남이 아님 76.07% 장녀 76.14%, 장녀가 아님 74.07%로 장남과 장녀가 낮게 나타난 것은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돌봐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부모님에 대한 애정 표시

부모님에 대한 애정 표시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 표 4-3 >과 같다.

< 표 4-3 > 부모님에 애정 표시 방법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부모님 존경합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등의 표현을 부모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드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부모님께서 선물, 용돈 등을 주실 때 가끔 하는 편이다	부모님의 생일, 기념일 등에는 선물을 드리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이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밖으로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
전체		636(100.0)			277(43.55)	92(14.47)	208(32.70)	57(0.31)	2(0.31)
지역별	제주시	157(4.69)	16.72	0.16	69(43.95)	22(14.01)	59(37.58)	7(4.46)	0(0.0)
	서귀포시	155(24.37)			73(47.10)	20(12.9)	48(30.97)	14(9.03)	0(0.0)
	북제주군	161(25.31)			75(46.58)	23(14.29)	50(31.06)	12(7.45)	1(0.62)
	남제주군	163(25.63)			60(36.81)	27(16.56)	5(31.29)	24(14.72)	1(0.61)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2(74.21)	8.10	0.08	210(44.49)	72(15.25)	155(32.84)	34(7.2)	1(0.21)
	같이 살고 있다	164(25.79)			67(40.85)	20(12.2)	53(32.32)	23(14.02)	1(0.61)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2)	18.21	0.001***	7(30.43)	2(8.7)	8(4.78)	5(21.74)	1(4.35)
	같이 살고 있다	613(96.38)			270(44.5)	90(14.68)	200(32.63)	52(8.48)	1(0.16)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6(48.11)	5.64	0.23	140(45.75)	43(14.05)	91(29.74)	32(10.46)	0(0.0)
	있다	330(51.89)			137(41.52)	49(14.85)	117(35.45)	25(7.58)	2(0.61)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7(46.70)	2.48	0.65	127(42.76)	42(14.14)	99(33.33)	27(9.09)	2(0.67)
	있다	339(53.30)			150(44.25)	50(14.75)	109(32.15)	30(8.85)	0(0.0)
성별	남자	353(55.85)	13.40	0.01**	146(41.36)	63(17.85)	104(29.46)	38(10.76)	2(0.57)
	여자	227(44.15)			130(46.59)	29(10.39)	101(36.2)	19(6.81)	0(0.0)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7(33.14)	3.77	0.44	51(43.59)	19(16.24)	38(32.48)	8(6.84)	1(0.85)
	장남	236(66.86)			95(40.25)	44(18.64)	66(27.97)	30(12.71)	1(0.42)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6(37.99)	13.75	0.003**	35(33.02)	14(13.21)	50(47.17)	7(6.6)	0(0.0)
	장녀	173(62.01)			95(54.91)	15(8.67)	51(29.48)	12(6.94)	0(0.0)
종교	불교	251(39.59)	26.36	0.049*	118(47.01)	30(1.95)	84(33.47)	18(7.17)	1(0.4)
	기독교	128(20.19)			67(52.34)	15(11.72)	35(27.34)	11(8.59)	0(0.0)
	천주교	93(14.67)			39(41.94)	19(20.43)	29(31.18)	6(6.45)	0(0.0)
	기타	17(2.68)			9(52.94)	3(17.65)	2(11.76)	3(17.65)	0(0.0)
	무교	145(22.87)			44(30.34)	25(17.24)	56(38.62)	19(13.1)	1(0.69)

*** $p < 0.001$ **$p < 0.01$ *$p < 0.05$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운 마음을 직접 부모님께 표시하는 편입니까? 라는 질문에 "「부모님 존경합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등의 표현을 부모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드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드립니다."

가 43.55%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이다"가 32.7%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 존경합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등의 표현을 부모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드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드립니다."에 대한 응답이 43.55%,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의 생일, 기념일 등에는 선물을 드리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0.78%로 높게 나타났고, 부모에 대한 애정표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인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밖으로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 항도 26%를 상회하여 부모와의 동거여부(x^2-value=18.2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동의 애정 표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녀인 경우 "「부모님 존경합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등의 표현을 부모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드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드립니다." 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54.91% 높은 반면, 장녀가 아닌 경우는 "부모님의 생일, 기념일 등에는 선물을 드리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이다" 항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value=13.75, p<.01).

성별로는 "「부모님 존경합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등의 표현을 부모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드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드립니다." 응답비율이 여자 46.59%, 남자가 41.36%로 통계적으로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일, 기념일 등에는 선물을 드리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이다"의 비율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x^2-value=13.40, p<.01).

믿고 있는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이(x^2-value=26.36, p<.05)를 보였는데 "「부모님 존경합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등의 표현을 부모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드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드립니다." 응답비율이 기독교 52.34%, 불교 47.01%, 천주교 41.9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종교를 갖는 것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모에 대한 동정심

부모님이 가장 안쓰럽고 측은해 보일 때는 다음 중 어느 때입니까?라는 질문에 "아프셨을 때"가 48.24%,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 하실 때"가 30.13%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세한 내용은 < 표 4-4 >와 같다.

< 표 4-4 > 부모님에 대한 동정심 발생 시기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체(%)	x^2	유의도	반응구분(%)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 하실 때	아프셨을 때	하시는 일이 잘 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를 야단치시고 미안해하실 때
전체		624(100.0)			188(30.13)	301(48.24)	85(13.62)	50(8.01)
지역별	제주시	155(24.84)	19.69	0.019*	51(32.9)	65(41.94)	17(10.97)	22(14.19)
	서귀포시	154(24.68)			46(29.87)	74(48.05)	27(17.53)	7(4.55)
	북제주군	157(25.16)			51(32.48)	80(50.96)	15(9.55)	11(7.01)
	남제주군	158(25.32)			40(25.32)	82(51.9)	26(16.46)	10(6.33)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66(74.68)	1.70	0.64	136(29.18)	224(48.07)	66(14.16)	40(8.58)
	같이 살고 있다	158(25.32)			52(32.91)	77(48.73)	19(12.03)	10(6.33)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0(3.21)	5.03	0.17	5(25.0)	10(50.0)	1(5.0)	4(20.0)
	같이 살고 있다	604(96.79)			183(30.3)	291(48.18)	84(13.91)	46(7.62)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298(47.76)	5.80	0.12	81(27.18)	144(48.32)	42(14.09)	31(10.4)
	있다	326(52.24)			107(32.82)	157(48.16)	43(13.19)	19(5.83)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0(46.47)	2.40	0.49	89(30.69)	143(49.31)	40(13.79)	18(6.21)
	있다	334(53.53)			99(29.64)	158(47.31)	45(13.47)	32(9.58)
성별	남자	347(55.97)	8.80	0.032*	99(28.53)	172(49.57)	40(11.53)	36(10.37)
	여자	273(44.03)			89(32.6)	126(46.15)	44(16.12)	14(5.13)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6(33.43)	7.80	0.046*	42(36.21)	57(49.14)	8(6.9)	9(7.76)
	장남	231(66.57)			57(24.68)	115(49.78)	32(13.85)	27(11.69)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5(38.46)	5.37	0.15	32(30.48)	50(47.62)	21(20.00)	2(1.9)
	장녀	168(61.54)			57(33.93)	76(45.24)	23(13.69)	12(7.14)
종교	불교	248(39.87)	12.83	0.38	83(33.47)	112(45.16)	28(11.29)	25(10.08)
	기독교	126(20.26)			30(23.81)	66(52.38)	21(16.67)	9(7.14)
	천주교	90(14.47)			24(26.67)	44(48.89)	14(15.56)	8(8.89)
	기타	16(2.57)			8(50.0)	7(43.75)	1(6.25)	0(0.0)
	무교	142(22.83)			42(29.58)	71(50.0)	21(14.79)	8(5.63)

* $p < 0.05$

변인별로는 지역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x^2-value=19.69, $p<.05$)를 보였는데 "부모님

이 아프셨을 때"의 응답에서 제주시 41.94%, 서귀포시가 48.05%로 낮은 반면, 북제주군 50.94%, 남제주군 51.9%로 높아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어린이가 부모님에 대한 동정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여부에서 장남의 경우 "하시는 일이 잘 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13.85%로 장남이 아닌 경우 6.9%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 "나를 야단치시고 미안해하실 때" 항목에서 장남 11.69%, 장남이 아님 7.76%, 장녀 10.08%, 장녀가 아님 7.14 로 나타나 장남, 장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측은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간에도 통계적으로 차이(x^2-value=8.8, $p<.05$)를 보였는데 "아프셨을 때"응답 비율이 남자 49.57, 여자 46.15%의 비율로 부모가 아팠을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에 대한 동정심이 더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 반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하실 때" 응답비율은 여자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가족 구성원의 화합과 이웃에로의 확대에 대한 분석

1) 가족 구성원의 화합

가족 구성원의 화합여부에 대한 반응은 < 표 4-5> 과 같이 부모님이 나를 슬프게 하고 원망스럽게 할 때는 다음 중 어떤 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형(언니, 누나)이나 동생의 편을 들면서 무엇이든 나를 보고 양보하라고 하실 때"가 43.30%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공부만 하라고 하실 때"의 응답이 31.6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간이 있는데도 부모님이 나와 놀아주지 않을 때", "용돈을 주지 않거나 사고 싶은 물건을 사주지 않을 때"의 응답은 각각 5.17%, 5.01%로 낮게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형제의 유무(x^2-value=9.46, $p<.05$), 동생의 유무(x^2-value=15.53, $p<.01$), 종교의 종류(x^2-value=32.29,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남동생 또는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형(언니, 누나)이나 동생의 편을 들면서 무엇이든 나를 보고 양보하라고 하실 때"의 반응 비율이 49.7%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남동생 또는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공부만 하라고 하실 때"의 응답비율이 37.37%로 높게 나타났다.

< 표 4-5 >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시도 때도 없이 공부만 하라고 하실 때	친구와 놀거나 컴퓨터 오락, 게임 등을 하지 못하게 하실 때	시간이 있는데도 부모님이 나와 놀아주지 않을 때	용돈을 주지 않거나 사고 싶은 물건을 사주지 않을 때	형(언니, 누나)이나 동생의 편을 들면서 무엇이든 나를 보고 양보하라고 하실 때
전체		619(100.0)			196(31.66)	92(14.86)	32(5.17)	31(5.01)	268(43.30)
지역별	제주시	155(25.04)	16.20	0.18	45(29.03)	22(14.19)	11(7.10)	2(1.29)	75(48.39)
	서귀포시	151(24.39)			46(30.46)	26(17.22)	7(4.64)	8(5.3)	64(42.38)
	북제주군	159(25.69)			47(29.56)	26(16.35)	9(5.66)	8(5.03)	69(43.4)
	남제주군	154(24.88)			58(37.66)	18(11.69)	5(3.25)	13(8.44)	60(38.96)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64(74.96)	2.70	0.61	143(30.82)	68(14.66)	22(4.74)	22(4.74)	209(45.04)
	같이 살고 있다	155(25.04)			53(34.19)	24(15.48)	10(6.45)	9(5.81)	59(38.06)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72)	0.98	0.91	9(39.13)	4(17.39)	1(4.35)	1(4.35)	8(34.78)
	같이 살고 있다	596(96.28)			187(31.38)	88(14.77)	31(5.2)	30(5.03)	260(43.6)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295(47.66)	9.46	0.05*	95(32.2)	32(10.85)	14(4.75)	19(6.44)	135(45.76)
	있다	324(52.34)			101(31.17)	60(18.52)	18(5.56)	12(3.7)	133(41.05)
남동생, 여동생	없다	289(46.69)	15.53	0.0037**	108(37.37)	46(15.92)	19(6.57)	12(4.15)	104(35.99)
	있다	330(53.31)			88(26.67)	46(13.94)	13(3.94)	19(5.76)	164(49.7)
성별	남자	344(55.84)			120(34.88)	69(20.06)	17(4.94)	22(6.4)	116(33.72)
	여자	272(44.16)			73(26.84)	23(8.46)	15(5.51)	9(3.31)	152(55.88)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5(33.43)	6.860	0.14	42(36.52)	30(26.29)	4(3.48)	4(3.48)	35(30.43)
	장남	229(66.57)			78(34.06)	39(17.03)	13(5.68)	18(7.86)	8(35.37)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4(38.24)	4.66	0.32	30(28.85)	13(12.5)	6(5.77)	3(2.88)	52(50.0)
	장녀	168(61.76)			43(25.6)	10(5.95)	9(5.36)	6(3.57)	100(59.52)
종교	불교	249(40.36)	32.29	0.009**	79(31.73)	38(15.26)	23(9.24)	8(3.21)	101(40.56)
	기독교	121(19.61)			42(34.71)	16(13.22)	2(1.65)	10(8.26)	51(42.15)
	천주교	931(5.07)			19(20.43)	15(16.13)	3(3.23)	4(4.3)	52(55.91)
	기타	16(2.59)			9(56.25)	2(12.5)	1(6.25)	1(6.25)	3(18.75)
	무교	138(22.37)			47(34.06)	21(15.22)	3(2.17)	8(5.8)	59(42.75)

** $p < 0.01$ * $p < 0.05$

종교별로는 "형(언니, 누나)이나 동생의 편을 들면서 무엇이든 나를 보고 양보하라고 하실 때"의 응답비율이 불교 40.56%, 기독교 47.14%, 천주교 55.91%, 무교 42.75%로 종교간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형(언니, 누나)이나 동생의 편을 들면서 무엇이든 나를 보고 양보하라고 하실 때" 55.88%, 남자 33.2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남자의 경우 "시도 때도 없이 공부만 하라고 하실 때" 34.88%, 여자 26.8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 부모님과 상의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 등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실천하는 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은 <표 4-6 >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일의 성격에 따라 의논할 일은 의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다."가 5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항상 부모님과 의논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가 27.87% "부모님과 의논하고 싶어도 부모님께서 의논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와 "부모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이 각각 7.56%를 차지하였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의논한다."는 응답은 2. 83%로 낮게 나타났다.

동생과 유무정도가 95%의 신뢰수준에서 x^2- value이 12.7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는데 "일의 성격에 따라 의논할 일은 의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다."의 응답에서 남동생 또는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57.97%, 같이 살고 있는 경우 50.8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과 의논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의 응답에서도 남동생 또는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서도 99%의 신뢰수준에서 x^2- value이 17.62로 도로 통계적으로 고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의 성격에 따라 의논할 일은 의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다"의 응답비율이 타 항에 비해 남녀 모두 높았으며, 여자 61.29%가 남자 48.5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적극적이라는 일반론을 증명하고 있다.

< 표 4-6 > 어려운 일 발생시 부모님과 상의, 의견을 존중 여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항상 부모님과 의논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	일의 성격에 따라 의논할 일은 의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다	부모님과 의논하고 싶어도 부모님께서 의논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과 의논한다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의논한다	부모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
전체		635(100.0)			177(27.87)	344(54.17)	48(7.56)	18(2.83)	48(7.56)
지역별	제주시	156(24.57)	10.97	0.53	45(28.85)	84(53.85)	15(9.62)	5(3.21)	7(4.49)
	서귀포시	155(24.41)			49(31.61)	83(53.55)	9(5.81)	4(2.58)	10(6.45)
	북제주군	162(25.51)			39(24.07)	87(53.7)	14(8.64)	3(1.85)	19(11.73)
	남제주군	162(25.51)			44(27.16)	90(55.56)	10(6.17)	6(3.7)	12(7.41)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2(74.33)	5.98	0.20	133(28.18)	263(55.72)	32(6.78)	14(2.97)	30(6.36)
	같이 살고 있다	163(25.67)			44(26.99)	81(49.69)	16(9.82)	4(2.45)	18(11.04)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2(3.46)	8.33	0.08	4(18.18)	10(45.45)	2(9.09)	1(4.55)	5(22.73)
	같이 살고 있다	613(96.54)			173(28.22)	334(54.49)	46(7.5)	17(2.77)	43(7.01)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5(48.03)	8.99	0.06	84(27.54)	166(54.43)	31(10.16)	6(1.97)	18(5.9)
	있다	330(51.97)			93(28.18)	178(53.94)	17(5.15)	12(3.64)	30(9.09)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5(46.46)	12.70	0.01*	73(24.75)	171(57.97)	15(5.08)	13(4.41)	23(7.8)
	있다	340(53.54)			104(30.59)	173(50.88)	33(9.71)	5(1.47)	25(7.35)
성별	남자	352(55.78)	17.62	0.002**	101(28.69)	171(48.58)	31(8.81)	12(3.41)	37(10.51)
	여자	279(44.22)			76(27.24)	171(61.29)	16(5.73)	6(2.15)	10(3.58)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4(32.39)	2.07	0.72	35(30.7)	55(48.25)	7(6.14)	5(4.39)	12(10.53)
	장남	238(67.61)			66(27.73)	116(48.74)	24(10.08)	7(2.94)	25(10.5)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6(37.99)	4.64	0.33	25(23.58)	68(64.15)	4(3.77)	3(2.83)	6(5.66)
	장녀	173(62.01)			51(29.48)	103(59.54)	12(6.94)	3(1.73)	4(2.31)
종교	불교	252(39.81)	15.61	0.48	78(30.95)	131(51.98)	20(7.94)	10(3.97)	13(5.16)
	기독교	127(20.06)			33(25.98)	75(59.06)	6(4.72)	3(2.36)	10(7.87)
	천주교	94(14.85)			27(28.72)	52(55.32)	8(8.51)	2(2.13)	5(5.32)
	기타	17(2.69)			3(17.65)	10(58.82)	1(5.88)	0(0.0)	3(17.65)
	무교	143(22.59)			36(25.17)	74(51.75)	13(9.09)	3(2.10)	17(11.89)

** $p < 0.01$ * $p < 0.05$

3) 부모님께서 시킨 일

부모가 시킨 일에 대한 복종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7 >과 같다.

< 표 4-7 > 부모의 명령에의 복종방법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부모님께서 시킨 일이니까 무조건 시킨 대로한다	옳아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시킨 일은 되도록 따르려 노력한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부모님이 시킨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따르지 않는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부모님께 그러한 사실을 간곡히 말씀드려 보고 난 에다 음 처리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전체		637(100.0)			131(20.57)	316(49.61)	53(8.32)	97(15.23)	40(6.28)
지역별	제주시	157(24.65)	19.71	0.07	24(15.29)	82(522.3)	9(5.73)	30(19.11)	12(7.64)
	서귀포시	154(24.18			29(18.83)	71(46.1)	20(12.99)	23(14.94)	11(7.14)
	북제주군	163(25.59)			42(25.77)	82(50.31)	15(9.2)	15(9.2)	9(5.52)
	남제주군	163(25.59)			36(22.09)	81(49.69)	9(5.52)	29(17.79)	8(4.91)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6(74.73)	18.63	0.0009***	80(16.81)	245(51.47)	46(9.66)	74(15.55)	31(6.51)
	같이 살고 있다	161(25.27)			51(31.68)	71(44.1)	7(4.35)	23(14.29)	9(5.59)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1)	1.73	0.79	6(26.09)	12(52.17)	1(4.35)	2(8.7)	2(8.7)
	같이 살고 있다	614(96.39)			125(20.36)	304(49.51)	52(8.47)	95(15.47)	38(6.19)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5(47.88)	1.62	0.81	63(20.66)	158(51.8)	23(7.54)	43(14.1)	18(5.9)
	있다	332(52.12)			68(20.48)	158(47.59)	30(9.04)	54(16.27)	22(6.63)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8(46.78)	2.39	0.66	56(18.79)	152(51.01)	25(8.39)	43(14.43)	22(7.38)
	있다	339(53.22)			75(22.12)	164(48.38)	28(8.26)	54(15.93)	18(5.31)
성별	남자	353(55.77)	4.99	0.29	83(23.51)	167(47.31)	29(8.22)	50(14.16)	6.8
	여자	280(44.23)			48(17.14)	147(52.5)	24(8.57)	46(16.43)	15(5.36)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7(33.14)	6.00	0.20	20(17.09)	57(48.72)	9(7.69)	20(17.09)	11(9.4)
	장남	236(66.86)			63(26.69)	110(46.61)	20(8.47)	30(12.71)	13(5.51)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7(38.21)	3.60	0.46	19(17.76)	53(49.53)	8(7.48)	18(16.82)	9(8.41)
	장녀	173(61.79)			29(16.79)	94(54.34)	16(9.25)	28(16.18)	6(3.47)
종교	불교	253(39.84)	14.78	0.54	52(20.55)	125(49.41)	19(7.51)	41(16.21)	16(6.32)
	기독교	128(20.16)			25(19.53)	71(55.47)	8(6.25)	19(14.84)	5(3.91)
	천주교	94(14.8)			24(25.52)	39(41.49)	6(6.38)	17(18.09)	8(8.51)
	기타	17(2.68)			1(5.88)	9(52.94)	2(11.76)	4(23.53)	1(5.88)
	무교	143(22.52)			29(20.28)	70(48.95)	18(12.59)	16(11.19)	10(6.99)

*** $p < 0.001$

부모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 내가 보기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옳아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시킨 일은 되도록 따르려 노력한다."가 49.61%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님께서 시킨 일이니까 무조건 시킨 대로한다."가 20.57%,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부모님께 그러한 사실을 간곡히 말씀드려보고 난 다음에 처리한다."가 15.23%,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부모님이 시킨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따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 동거여부에서만 통계적 유의성(x^2-value=18.63, $p<.001$)을 보여 "옳아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시킨 일은 되도록 따르려 노력한다"에서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51.47%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44.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께서 시킨 일이니까 무조건 시킨 대로한다."의 응답비율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20.36%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4) 형제 자매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형제자매간 의견 차이 발생시 조정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 표 4-8 >에 보는 바와 같다. 집에서 어떤 일로 형제자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모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결해 주도록 부탁드린다."가 28.50%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형제자매 사이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을 한다."가 22.23%, "나의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대로 일이 해결되도록 한다."가 22.22%, "의견 차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을 잘 처리한다."가 14.01%, 되도록 내가 양보하여 다른 형제자매의 의견을 따른다."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변인별로는 지역간, 조부모 동거여부, 성별 등에 따라서도 ②, ③항의 반응에 대한 대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치를 보였다. 종교종류에 따라서 x^2-value이 29.13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무교의 경우 "나의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대로 일이 해결되도록 한다."가 31.21%로 높게 나타났으며 천주교의 경우 "부모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결해 주도록 부탁한다."가 41.43%로 높게 나타나며, 불교의 경우 "형제자매 사이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을 한다."로 41.69%로 높게 나타나 종교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8 > 형제자매간 의견 차이 조정 방법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나의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대로 일이 해결되도록 한다	부모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결해 주도록 부탁드린다	형제자매 사이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을 한다	내가 양보하여 다른 형제자매의 의견을 따른다	의견 차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을 잘 처리한다
전체		621(100.0)			138(22.22)	177(28.50)	157(25.28)	62(9.98)	87(14.01)
지역별	제주시	154(24.8)	11.17	0.51	31(20.13)	41(26.62)	45(29.22)	16(10.39)	21(13.64)
	서귀포시	149(23.99)			30(20.13)	43(28.86)	39(26.17)	13(8.72)	24(16.11)
	북제주군	158(25.44)			29(18.35)	52(32.91)	40(25.32)	17(10.76)	20(12.66)
	남제주군	160(25.76)			48(30.0)	41(25.63)	33(20.63)	16(10.0)	22(13.75)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64(74.72)	2.93	0.57	103(22.2)	138(29.74)	115(24.78)	48(10.34)	60(12.93)
	같이 살고 있다	157(25.28)			35(22.29)	39(24.84)	42(26.75)	14(8.92)	27(17.2)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1(3.38)	2.62	0.62	3(14.29)	7(33.33)	4(19.05)	2(9.52)	5(23.81)
	같이 살고 있다	600(96.62)			135(22.5)	170(28.33)	153(25.5)	60(10.0)	82(13.67)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292(47.02)	3.26	0.51	71(24.32)	88(30.14)	68(23.29)	28(9.59)	37(12.67)
	있다	329(52.98)			67(20.36)	89(27.05)	89(27.05)	34(10.33)	50(15.2)
남동생, 여동생	없다	282(45.41)	8.28	0.08	55(19.5)	74(26.24)	78(27.66)	26(9.22)	49(17.38)
	있다	339(54.59)			83(24.48)	103(30.38)	79(23.3)	36(10.62)	38(11.21)
성별	남자	342(55.34)	3.08	0.54	69(20.18)	100(29.24)	84(24.56)	38(11.11)	51(14.91)
	여자	276(44.66)			68(24.64)	75(27.17)	73(26.45)	24(8.7)	36(13.04)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5(33.63)	2.79	0.59	21(18.26)	30(26.09)	28(24.35)	15(13.04)	21(18.26)
	장남	227(66.67)			48(21.15)	70(30.84)	56(24.67)	23(10.13)	30(13.22)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7(38.77)	5.57	0.23	25(23.36)	27(25.23)	28(26.17)	7(6.54)	20(18.69)
	장녀	169(61.23)			43(25.44)	48(28.4)	45(26.63)	17(10.06)	16(9.47)
종교	불교	245(39.58)	29.13	0.02*	52(21.22)	67(27.35)	70(28.57)	28(11.43)	28(11.43)
	기독교	125(20.19)			28(22.4)	34(27.2)	32(25.6)	13(10.4)	18(14.4)
	천주교	92(14.86)			11(11.96)	38(41.3)	20(21.74)	9(9.78)	14(15.22)
	기타	16(2.58)			3(18.75)	4(25.0)	3(18.75)	4(25.0)	2(12.5)
	무교	141(22.78)			44(31.21)	33(23.4)	32(22.7)	7(4.96)	25(17.73)

* $p < 0.05$

5) 어른 존경

어른에 대한 존경의식 조사 결과는 < 표 4-9 >와 같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거나, 혹은 버스 안에서 만났을 때, 대신 짐을 들어주거나 자리를 양보하겠습니까? 란 질문에 "당연히 짐을 들어주거나 자리를 양보한다" 가 4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그 때 상황을 보아서 결정하겠다" 가 30.3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내가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가 22%로 높고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짐을 대신 들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르는 분이면 대신 들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 는 낮게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지역간에 있어 "당연히 짐을 들어주거나 자리를 양보한다."의 반응에서 제주시 51.59%, 서귀포시가 53.5% 비율로 다른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x^2-value=26.48, $p<.05$) 로는 "당연히 짐을 들어주거나 자리를 양보한다."의 반응에서 불교 42.69%, 기독교 47.24%, 천주교 57.89%, 무교 37.93%의 비율이 기타 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타 종교는 "그때 상황을 보아서 결정하겠다."가 52.94%의 비율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표 4-9 > 어른에 대한 존경의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당연히 짐을 들어주거나 자리를 양보한다	내가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내가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르는 분이면 대신 들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짐을 대신 들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	그 때 상황을 보아서 결정하겠다
전체		639(100.0)			282(44.13)	141(22.07)	9(1.41)	13(2.03)	194(30.36)
지역별	제주시	157(24.57)	36.97	0.0002***	81(51.59)	29(18.47)	3(1.91)	5(3.18)	39(24.84)
	서귀포시	157(24.57)			84(53.5)	23(14.65)	0(0.0)	2(1.27)	48(30.57)
	북제주군	163(25.51)			66(40.49)	39(23.93)	0(0.0)	3(1.84)	55(33.74)
	남제주군	162(25.35)			51(31.48)	50(30.86)	6(3.7)	3(1.85)	52(32.1)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5(74.33)	5.13	0.27	198(41.68)	109(22.95)	6(1.26)	10(2.11)	152(32.0)
	같이 살고 있다	164(25.67)			84(51.22)	32(19.51)	3(1.83)	3(1.83)	42(25.61)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	2.26	0.69	11(47.83)	4(17.39)	1(4.35)	0(0.0)	7(30.43)
	같이 살고 있다	616(96.4)			271(43.99)	137(22.24)	8(1.3)	13(2.11)	187(30.36)
형, 누나, 언니,오빠	없다	306(47.89)	3.39	0.49	146(47.71)	62(20.26)	4(1.31)	5(1.63)	89(29.08)
	있다	333(52.11)			136(40.84)	79(23.72)	5(1.5)	8(2.4)	105(31.53)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8(46.64)	3.07	0.55	124(41.61)	65(21.81)	4(1.34)	5(1.68)	100(33.56)
	있다	341(53.36)			158(46.33)	76(22.29)	5(1.47)	8(2.35)	94(27.57)
성별	남자	355(55.91)	4.63	0.32	153(43.1)	75(21.13)	7(1.97)	10(2.82)	110(30.99)
	여자	280(44.09)			125(44.64)	66(23.57)	2(0.71)	3(1.07)	84(30.0)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7(32.96)	2.43	0.66	49(41.88)	27(23.08)	3(2.56)	5(4.27)	33(28.21)
	장남	238(67.04)			104(43.7)	48(20.17)	4(1.68)	5(2.1)	77(32.35)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8(38.57)	0.80	0.94	51(47.22)	23(21.3)	1(0.93)	1(0.93)	32(29.63)
	장녀	172(61.43)			74(43.02)	43(25.00)	1(0.58)	2(1.16)	52(30.23)
종교	불교	253(39.72)	26.48	0.047*	108(42.69)	60(23.72)	3(1.19)	4(1.58)	78(30.83)
	기독교	127(19.94)			60(47.24)	30(23.62)	1(0.79)	1(0.79)	35(27.56)
	천주교	95(14.91)			55(57.89)	12(12.63)	0(0.0)	3(3.16)	25(26.32)
	기타	17(2.67)			3(17.65)	4(23.53)	0(0.0)	1(5.88)	9(52.94)
	무교	145(22.76)			55(37.93)	34(23.45)	5(3.45)	4(2.76)	47(32.41)

*** $p < 0.001$ **$p < 0.01$ *$p < 0.05$

6) 장래에 대한 의견

나의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란 질문에 대한 응답< 표 4-10 >은 " 부모님을 설득해 보다가 정 안되면 부모님의 바라는 대로 따르겠다"가 28.06%로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부모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가 27.7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좀 더 자라서 다시 부모님과 상의해서 장래 희망을 결정하겠다."가 25.08%, 그 외 소수의 견으로는 "부모님을 설득해 보다가 안되면 거역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갈 것이다."는 응답이 있었다.

변인별로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의 반응에서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27.48%, 장녀가 아닌 경우가 31.48%로 높게 나타났고, " 부모님을 설득해 보다가 정 안되면 부모님의 바라는 대로 따르겠다."의 반응에서는 부모와 동거가 28.46%, 남자가 30.14%, 장남이 아닌 경우가 30.77%로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 표 4-10 > 나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의견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체(%)	x^2	유의도	반응구분(%)				
					부모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부모님을 설득해 보다가 정 안되면 부모님의 바라는 대로 따르겠다	부모님을 설득해 보다가 안되면 거역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좀 더 자라서 다시 부모님과 상의해서 장래 희망을 결정하겠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상관 없이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전체		638(100.0)			177(27.74)	179(28.06)	76(11.91)	160(25.08)	46(7.21)
지역별	제주시	158(24.76)	15.49	0.22	57(36.08)	36(22.78)	16(10.13)	40(25.32)	9(5.7)
	서귀포시	155(24.29)			41(26.45)	45(29.03)	23(14.84)	38(24.52)	8(5.16)
	북제주군	163(25.55)			42(25.77)	42(25.77)	21(12.88)	44(26.99)	14(8.59)
	남제주군	162(25.39)			37(22.84)	56(34.57)	16(9.88)	38(23.46)	15(9.26)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5(74.45)	1.14	0.89	131(27.58)	136(28.63)	59(12.42)	116(24.42)	33(6.95)
	같이 살고 있다	163(25.55)			46(28.22)	43(26.38)	17(10.43)	44(26.99)	13(7.98)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1)	4.03	0.40	8(34.78)	4(17.39)	3(13.04)	8(34.78)	0(0.0)
	같이 살고 있다	615(96.39)			169(27.48)	175(28.46)	73(11.87)	152(24.72)	46(7.48)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5(47.81)	4.35	0.36	84(27.54)	87(28.52)	32(10.49)	74(24.26)	28(9.18)
	있다	333(52.19)			93(27.93)	92(27.63)	44(13.21)	86(25.83)	18(5.41)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8(46.71)	8.62	0.07	78(26.17)	83(27.85)	42(14.09)	81(27.18)	14(4.7)
	있다	340(53.29)			99(29.12)	96(28.24)	34(10.0)	79(23.24)	32(9.41)
성별	남자	355(55.99)	6.87	0.14	99(27.89)	107(30.14)	41(11.55)	78(21.97)	30(8.45)
	여자	279(44.01)			76(27.24)	71(25.45)	35(12.54)	82(29.39)	15(5.38)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7(32.96)	0.69	0.95	33(28.21)	36(30.77)	13(11.11)	27(23.08)	8(6.84)
	장남	238(67.04)			66(27.73)	71(29.83)	28(11.76)	51(21.43)	22(9.24)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8(38.71)	6.06	0.20	34(31.48)	30(27.78)	12(11.11)	30(27.78)	2(1.85)
	장녀	171(61.29)			42(24.56)	41(23.98)	23(13.45)	52(30.41)	13(7.6)
종교	불교	253(39.78)	22.09	0.14	81(32.02)	76(30.04)	23(9.09)	59(23.32)	14(5.53)
	기독교	127(19.97)			42(33.07)	34(26.77)	15(11.81)	30(23.62)	6(4.72)
	천주교	94(14.78)			18(19.15)	27(28.72)	13(13.83)	28(29.79)	8(8.51)
	기타	17(2.67)			2(11.76)	6(35.29)	1(5.88)	6(35.29)	2(11.76)
	무교	145(22.8)			34(23.45)	36(24.83)	24(16.55)	35(24.14)	16(11.03)

3.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 희생, 책임과 임무에 대한 분석

1) 효경 의식

부모님의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심부름, 방청소 등을 잘 하는 편입니까? 란 질문에 “잘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가 61.44%, 다음으로는 “매우 잘하는 편이다”가 21.63%로 높게 나타났고 자세한 내용은 < 표 4-11 >과 같다.

< 표 4-11 > 효경 의식 정도 조사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체 (%)	χ^2	유의도	반응구분(%)				
					매우 잘하는 편이다	잘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잘 하지 못하는 편이다	부모님께서 심부름 값, 방 청소 값 등 어떤 대가를 주면 한다	부모님의 일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셔야 하고 나는 내 일만 잘 하면 된다
전체		638(100.0)			138(21.63)	392(61.44)	86(13.48)	14(2.19)	8(1.25)
지역별	제주시	157(24.61)	10.93	0.53	38(24.2)	96(61.15)	16(10.19)	4(2.55)	3(1.91)
	서귀포시	156(24.45)			28(17.95)	99(63.46)	22(14.1)	6(3.85)	1(0.64)
	북제주군	162(25.39)			41(25.31)	94(58.02)	22(13.58)	2(1.23)	3(1.85)
	남제주군	163(25.55)			31(19.02)	103(63.19)	26(15.95)	2(1.23)	1(0.61)
조부모	같이살고 있지않다	475(74.45)	1.42	0.84	101(21.26)	292(61.47)	67(14.11)	9(1.89)	6(1.26)
	같이 살고 있다	163(25.55)			37(22.7)	100(61.35)	19(11.66)	5(3.07)	2(1.23)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1)	4.80	0.31	2(8.7)	17(73.91)	3(13.04)	0(0.0)	1(4.35)
	같이 살고 있다	615(96.39)			136(22.11)	375(60.98)	83(13.5)	14(2.28)	7(1.14)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5(47.81)	1.10	0.89	71(23.28)	184(60.33)	39(12.79)	7(2.3)	4(1.31)
	있다	333(52.19)			67(20.12)	208(62.46)	47(14.11)	7(2.1)	4(1.2)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8(46.71)	14.87	0.005**	45(15.1)	199(66.78)	43(14.43)	6(2.01)	5(1.68)
	있다	340(53.29)			93(27.35)	193(56.76)	43(12.65)	8(2.35)	3(0.88)
성별	남자	354(55.84)	6.87	0.14	70(19.77)	215(60.73)	52(14.69)	10(2.82)	7(1.98)
	여자	280(44.16)			68(24.29)	173(61.79)	34(12.14)	4(1.43)	1(0.36)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8(33.33)	1.44	0.84	23(19.49)	69(58.47)	21(17.8)	3(2.54)	2(1.69)
	장남	236(66.67)			47(19.92)	146(61.86)	31(13.14)	7(2.97)	5(2.12)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7(38.21)	5.93	0.20	19(17.76)	72(67.29)	14(13.08)	1(0.93)	1(0.93)
	장녀	173(61.79)			49(28.32)	101(58.38)	20(11.56)	3(1.73)	0(0.0)
종교	불교	254(39.94)	28.21	0.03*	66(25.98)	152(59.84)	34(13.39)	1(0.39)	1(0.39)
	기독교	127(19.97)			27(21.26)	79(62.2)	17(13.39)	3(2.36)	1(0.79)
	천주교	94(14.78)			15(15.96)	65(69.15)	7(7.45)	4(4.26)	3(3.19)
	기타	17(2.67)			6(35.29)	10(58.82)	1(5.88)	0(0.0)	0(0.0)
	무교	144(22.64)			24(16.67)	84(58.33)	27(18.75)	6(4.17)	3(2.08)

*** $p < 0.001$ **$p < 0.01$ *$p < 0.05$

"잘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응답이 남동생,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56.76%,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66.78%로 모두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잘하는 편이다."의 응답비율도 남동생,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27.35%, 같이 살고 있는 않은 경우 15.1%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도 "잘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x^2-value=28.21, $p<.05$)를 보였는데 불교 59.84%, 기독교 62.2%, 천주교 69.15%, 기타 58.82%, 무교 58.33%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효도 방법

최선의 효도방법 조사 설문에 대한 내용은 < 표 4-12 > 와 같다.

초등학생인 내가 현재의 위치에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란 질문에 "공부를 잘하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41.95%이고 다음으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 드리는 것"이 31.26%로 높게 나타났으나 각 변인별로는 이와 유사한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 표 4-12 > 최선의 효도 방법 의견 조사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체(%)	x^2	유의도	반응구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것	공부를 잘하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형제자매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친구,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육체적, 정신적으로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전체		627(100.0)			196(31.26)	263(41.95)	58(9.25)	6(0.96)	104(16.59)
지역별	제주시	154(24.56)	12.94	0.37	44(28.57)	65(42.21)	22(14.29)	1(0.65)	22(14.29)
	서귀포시	155(24.72)			47(30.32)	62(40.0)	14(9.03)	2(1.29)	30(19.35)
	북제주군	160(25.52)			53(33.13)	66(41.25)	8(5.0)	1(0.63)	32(20.0)
	남제주군	158(25.20)			52(32.91)	70(44.3)	14(8.86)	2(1.27)	20(12.66)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65(74.16)	7.04	0.13	136(29.25)	196(42.15)	50(10.75)	5(1.08)	78(16.77)
	같이 살고 있다	162(25.84)			60(37.04)	67(41.36)	8(4.94)	1(0.62)	26(16.05)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7)	0.84	0.93	6(26.09)	10(43.48)	2(8.7)	0(0.0)	5(21.74)
	같이 살고 있다	604(96.33)			190(31.46)	253(41.89)	56(9.27)	6(0.99)	99(16.39)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299(47.69)	0.76	0.94	96(32.11)	126(42.14)	27(9.03)	2(0.67)	48(16.05)
	있다	328(52.31)			100(30.49)	137(41.77)	31(9.45)	4(1.22)	56(17.07)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5(47.05)	2.35	0.67	90(30.51)	123(41.69)	25(8.47)	2(0.68)	55(18.64)
	있다	332(52.95)			106(31.93)	140(42.17)	33(9.94)	4(1.2)	49(14.76)
성별	남자	351(56.25)	4.24	0.38	109(31.05)	151(43.02)	37(10.54)	4(1.14)	50(14.25)
	여자	273(43.75)			85(31.14)	112(41.03)	21(7.69)	2(0.73)	53(19.41)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6(33.05)	2.55	0.64	35(30.17)	46(39.66)	16(13.79)	1(0.86)	18(15.52)
	장남	235(66.95)			74(31.49)	105(44.68)	21(8.94)	3(1.28)	32(13.62)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5(38.46)	3.06	0.55	35(33.33)	46(43.81)	5(4.76)	1(0.95)	18(17.14)
	장녀	168(61.54)			50(29.76)	66(39.29)	16(9.52)	1(0.6)	35(20.83)
종교	불교	247(39.52)	9.85	0.87	82(33.2)	101(40.89)	21(8.5)	3(1.21)	40(16.19)
	기독교	126(20.16)			45(35.71)	50(39.68)	13(10.32)	1(0.79)	17(13.49)
	천주교	93(14.88)			29(31.18)	36(38.71)	7(7.53)	0(0.0)	21(22.58)
	기타	17(2.72)			5(29.41)	7(41.18)	2(11.76)	0(0.0)	3(17.65)
	무교	142(22.72)			35(24.65)	68(47.89)	14(9.86)	2(1.41)	23(16.2)

3) 부모 봉양에 대한 방법

부모 봉양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의견은 <표 4-13>과 같다.

< 표 4-13 > 부모 봉양에 대한 의견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체(%)	x^2	유의도	반응구분(%)				
					장남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장남이 아니라도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은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노인복지 관련 국가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서 모시도록 한다
전체		637(100.0)			227(35.64)	156(24.49)	240(37.68)	13(2.04)	1(0.16)
지역별	제주시	157(24.65)	30.96	0.002**	50(31.85)	36(22.93)	67(42.68)	4(2.55)	0(0.0)
	서귀포시	156(24.49)			59(37.82)	51(32.69)	40(25.64)	5(3.21)	1(0.64)
	북제주군	162(25.43)			68(41.98)	40(24.69)	53(32.72)	1(0.62)	0(0.0)
	남제주군	162(25.43)			50(30.86)	29(17.9)	80(49.38)	3(1.85)	0(0.0)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3(74.25)	4.51	0.34	159(33.62)	116(24.52)	186(39.32)	11(2.33)	1(0.21)
	같이 살고 있다	164(25.75)			68(41.46)	40(24.39)	54(32.93)	2(1.22)	0(0.0)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1)	2.13	0.71	10(43.48)	7(30.43)	6(26.09)	0(0.0)	0(0.0)
	같이 살고 있다	614(96.39)			217(35.34)	149(24.27)	234(38.11)	13(2.12)	1(0.16)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5(47.88)	32.58	0.0001***	141(46.23)	57(18.69)	104(34.1)	3(0.98)	0(0.0)
	있다	332(52.12)			86(25.9)	99(29.82)	136(40.96)	10(3.01)	1(0.3)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6(46.47)	22.14	0.0002***	83(28.04)	93(31.42)	111(37.5)	8(2.7)	1(0.34)
	있다	341(53.53)			144(42.23)	63(18.48)	129(37.83)	5(1.47)	0(0.0)
성별	남자	353(55.68)	145.84	0.0001***	183(51.84)	97(27.48)	64(18.13)	8(2.27)	1(0.28)
	여자	281(44.32)			42(14.95)	58(20.64)	176(62.63)	5(1.78)	0(0.0)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7(33.14)	115.33	0.0001***	16(13.68)	68(58.12)	29(24.79)	3(2.56)	1(0.85)
	장남	236(66.86)			167(70.76)	29(12.29)	35(14.83)	5(2.12)	0(0.0)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8(38.43)	6.68	0.08	13(12.04)	18(16.67)	73(67.59)	4(3.7)	0(0.0)
	장녀	173(61.57)			29(16.76)	40(23.12)	103(59.54)	1(0.58)	0(0.0)
종교	불교	252(39.69)	9.22	0.90	94(37.3)	58(23.02)	94(37.3)	5(1.98)	1(0.4)
	기독교	127(20.0)			43(33.86)	31(24.41)	52(40.94)	1(0.79)	0(0.0)
	천주교	95(14.96)			32(33.68)	23(24.21)	39(41.05)	1(1.05)	0(0.0)
	기타	17(2.68)			5(29.41)	3(17.65)	8(47.06)	1(5.88)	0(0.0)
	무교	144(22.68)			53(36.81)	39(27.08)	47(32.64)	5(3.47)	0(0.0)

*** $p < 0.001$ **$p < 0.01$ *$p < 0.05$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누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란 질문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37.68%, 다음에는 "장남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35.6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여 "장남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의 응답인 경우 서귀포시 37.82%, 북제주군 41.98%,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의 응답인 경우 제주시 42.68%, 남제주군 49.38%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형, 누나, 언니, 오빠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의 응답비율이 40.96%로 높은 반면 형, 누나, 언니, 오빠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장남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의 응답비율이 46.28%로 높게 나타났다.

남동생,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장남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의 응답비율이 42.23%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의 응답 비율이 31.42%로 높게 나타났다.

장남의 경우 "장남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응답이 70.76%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장남이 아닌 경우 "장남이 아니라도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응답 비율이 58.12%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인 경우 "장남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응답 51.84%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응답이62.63%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부모 봉양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란 질문에 "당연히 우리 집에 모셔야하고 최선을 다해 모실 것이다"가 83.5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 표 4-14 >와 같다.

변인별로는 종교종류간에 통계적으로 고도로 유의한 차이(x^2-value=46.27, $p<.001$)를

보여 "부모님의 집을 따로 장만하여 자주 드나들면서 모시도록 하겠다."의 비율이 기타교에서 23.53%, 무교에서 9.66%로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와 결혼한 아내 혹은 남편과 의논해서 어떻게 모실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성별의 경우 남자 3.93%, 여자 7.19%로 남자 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장녀 5.23%, 장녀가 아님 10.38%로 장녀가 아님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전통 유교사상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14 >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 봉양 여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당연히 우리 집에 모셔야 하고 최선을 다해 모실 것이다	부모님의 집을 따로 장만하여 자주 드나들면서 모시도록 하겠다	부모님의 집을 따로 장만하여 사람을 고용하여 모시도록 하겠다	노인복지 관련 국가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서 모시도록 하겠다	나와 결혼한 아내 혹은 남편과 의논해서 어떻게 모실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전체		638(100.0)			533(83.54)	63(9.87)	7(1.10)	1(0.16)	34(5.33)
지역별	제주시	158(24.76)	6.00	0.92	134(84.81)	14(8.86)	1(0.63)	0(0.0)	9(5.7)
	서귀포시	156(24.45)			130(83.33)	15(9.62)	1(0.64)	0(0.0)	10(6.41)
	북제주군	161(25.24)			134(83.23)	15(9.32)	3(1.86)	1(0.62)	8(4.97)
	남제주군	163(25.55)			135(82.82)	19(11.66)	2(1.23)	0(0.0)	7(4.29)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4(74.29)	1.32	0.86	393(82.91)	49(10.34)	6(1.27)	1(0.21)	25(5.27)
	같이 살고 있다	164(25.71)			140(85.37)	14(8.54)	1(0.61)	0(0.0)	9(5.49)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1)	1.58	0.81	20(86.96)	1(4.35)	0(0.0)	0(0.0)	2(8.7)
	같이 살고 있다	615(96.39)			513(83.41)	62(10.08)	7(1.14)	1(0.16)	32(5.2)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6(47.96)	7.37	0.12	261(85.29)	33(10.78)	2(0.65)	0(0.0)	10(3.27)
	있다	332(52.04)			272(81.93)	30(9.04)	5(1.51)	1(0.3)	24(7.23)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9(46.87)	4.36	0.36	242(80.94)	33(11.04)	4(1.34)	0(0.0)	20(6.69)
	있다	339(53.13)			291(85.84)	30(8.85)	3(0.88)	1(0.29)	14(4.13)
성별	남자	356(56.15)	6.68	0.15	298(83.71)	37(10.39)	6(1.69)	1(0.28)	14(3.93)
	여자	278(43.85)			232(83.45)	25(8.99)	1(0.36)	0(0.0)	20(7.19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8(33.15)	1.24	0.87	101(85.59)	10(8.47)	2(1.69)	0(0.0)	5(4.24)
	장남	238(66.85)			197(82.77)	27(11.34)	4(1.68)	1(0.42)	9(3.78)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6(38.13)	3.19	0.36	86(81.13)	9(8.49)	0(0.0)	0(0.0)	11(10.38)
	장녀	172(61.87)			146(84.88)	16(9.3)	1(0.58)	0(0.0)	9(5.23)
종교	불교	253(39.78)	46.27	0.0001***	218(86.17)	22(8.7)	2(0.79)	0(0.0)	11(4.35)
	기독교	127(19.97)			107(84.25)	12(9.45)	2(1.57)	0(0.0)	6(4.72)
	천주교	94(14.78)			78(82.98)	11(11.7)	0(0.0)	0(0.0)	5(5.32)
	기타	17(2.67)			11(64.71)	4(23.53)	0(0.0)	1(5.88)	1(5.88)
	무교	145(22.8)			117(80.69)	14(9.66)	3(2.07)	0(0.0)	11(7.59)

***p< 0.001 **p<0.01 *p<0.05

4. 가족의 영속과 돌아가신 부모님 및 조상에 대한 봉사 분석

1) 가족의 영속에 대한 의식

가족의 영속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는 < 표 4-15 >과 같다.

< 표 4-15 > 가족의 영속에 대한 의식조사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가능하면 첨단 현대 의학기술을 빌려서라도 자식을 얻어 대를 잇도록 하겠다	입양기관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와 양자로 삼고 대를 잇도록 하겠다	자식이 없어도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겠다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입양기관으로부터 양자를 입양할 생각은 있다
전체		633(100.0)			159(25.12)	84(13.27)	289(45.66)	101(15.96)
지역별	제주시	156(24.64)	17.90	0.036*	37(23.72)	25(16.03)	73(46.79)	21(13.46)
	서귀포시	153(24.49)			35(22.58)	18(11.61)	78(50.32)	24(15.48)
	북제주군	161(25.43)			51(31.68)	15(9.32)	76(47.2)	19(11.8)
	남제주군	161(25.43)			36(22.36)	26(16.16)	62(38.51)	37(22.98)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0(74.25)	1.55	0.67	120(25.53)	63(13.4)	217(46.17)	70(14.89)
	같이 살고 있다	163(25.75)			39(23.93)	21(12.88)	72(44.17)	31(19.02)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1)	4.55	0.21	3(13.04)	3(13.04)	10(43.48)	7(30.43)
	같이 살고 있다	610(96.39)			156(25.57)	81(13.28)	279(45.74)	94(15.41)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4(48.03)	3.28	0.35	86(28.29)	39(12.83)	131(43.09)	48(15.79)
	있다	329(51.97)			73(22.19)	45(13.68)	158(48.02)	53(16.11)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4(46.45)	4.09	0.25	63(21.43)	42(14.29)	141(47.96)	48(16.33)
	있다	339(53.55)			96(28.32)	42(12.39)	148(43.66)	53(15.63)
성별	남자	348(55.33)	35.75	0.0001***	112(32.18)	34(9.77)	165(47.41)	37(10.63)
	여자	281(44.67)			47(16.73)	49(17.44)	122(43.42)	63(22.42)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4(32.76)	1.12	0.77	33(28.95)	13(11.4)	56(49.12)	12(10.53)
	장남	234(67.24)			79(33.76)	21(8.97)	109(46.58)	25(10.68)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8(38.43)	4.51	0.21	13(12.04)	16(14.81)	53(49.07)	26(24.07)
	장녀	173(61.57)			34(19.65)	33(19.08)	69(39.88)	37(21.39)
종교	불교	253(40.1)	9.84	0.63	64(25.3)	29(11.46)	124(49.01)	36(14.23)
	기독교	127(20.13)			31(24.41)	20(15.75)	54(42.52)	22(17.32)
	천주교	93(14.74)			31(33.33)	13(13.98)	34(36.56)	15(16.13)
	기타	17(2.69)			4(23.53)	3(17.65)	6(35.29)	4(23.53)
	무교	141(22.35)			29(20.57)	19(13.48)	69(48.94)	24(17.02)

*** < 0.001 ** < 0.01 * < 0.05

옛날에는 부모 슬하에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매우 큰 불효라고 여겨왔습니다. 만약 내가 어른이 되어 결혼했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란 질문에 "자식이 없어도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겠다." 45.66%, 다음에는 "가능하면 첨

단 현대 의학기술을 빌려서라도 자식을 얻어 대를 잇도록 하겠다." 25.12%로 나타나고 있어 대를 잇는 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자식이 없어도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겠다." 응답 비율이 제주시 46.76%, 서귀포시 50.32%로 도시지역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간에도 유의차(x^2-value=35.75, p<.001)를 보였는데 남자는 "가능하면 첨단 현대 의학기술을 빌려서라도 자식을 얻어 대를 잇도록 하겠다." 응답비율이 32.18%,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입양기관으로부터 양자를 입양할 생각은 있다" 응답이 10.63%인 반면, 여자는 "입양기관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와 양자로 삼고 대를 잇도록 하겠다." 응답이 17.44%,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입양기관으로부터 양자를 입양할 생각은 있다" 응답이 22.42%로 남자가 여자보다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조상에 대한 봉사

조상에 대한 제사와 차례 지내기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는 < 표 4-16 >과 같다.

옛날부터 내려온 조상에 대한 제사와 차례 지내기, 성묘와 벌초 등의 문화전통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란 질문에 "아름다운 효의 문화전통이므로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한다." 77.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 " 아름다운 효의 문화전통이므로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한다." 는 비율이 불교 85.6%, 기독교 69.29%, 천주교 76.84%, 기타 64.71%, 무교 73.43%의 비율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불교의 경우 다른 종교에 비해 "아름다운 효의 문화전통이므로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한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4-16 > 조상에 대한 제사와 차례 지내기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아름다운 효의 문화전통이므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문화전통이긴 하지만 오늘날에 맞게 고쳐야 한다	사람마다 믿는 종교가 다르고 조상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오늘날 반드시 아름다운 문화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		634(100.0)			493(77.76)	108(17.03)	20(3.15)	13(2.05)
지역별	제주시	157(24.76)	9.10	0.43	123(78.34)	25(15.92)	8(5.1)	1(0.64)
	서귀포시	156(24.61)			124(79.49)	27(17.31)	2(1.28)	3(1.92)
	북제주군	160(25.24)			128(80.0)	25(15.63)	3(1.88)	4(2.5)
	남제주군	161(25.39)			118(79.29)	31(19.25)	7(4.35)	5(3.11)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2(74.45)	5.27	0.15	360(76.27)	89(18.86)	15(3.18)	8(1.69)
	같이 살고 있다	162(25.55)			133(82.1)	19(11.73)	5(3.09)	5(3.09)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3)	1.66	0.65	19(82.61)	3(13.04)	0(0.0)	1(4.35)
	같이 살고 있다	611(96.37)			474(77.58)	105(17.18)	20(3.27)	12(1.96)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5(48.11)	2.51	0.47	230(75.41)	59(19.34)	9(2.95)	7(2.3)
	있다	329(51.89)			263(71.94)	49(14.89)	11(3.34)	6(1.82)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7(46.85)	3.92	0.27	235(79.12)	43(14.48)	12(4.04)	7(2.36)
	있다	337(53.15)			258(76.56)	65(19.29)	8(2.37)	6(1.78)
성별	남자	353(56.03)	0.45	0.93	278(78.75)	57(16.15)	11(3.12)	7(1.98)
	여자	277(43.97)			213(76.9)	50(18.05)	8(2.89)	6(2.17)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7(33.14)	2.40	0.49	97(82.91)	14(11.97)	4(3.42)	2(1.71)
	장남	236(66.86)			181(76.69)	43(18.22)	7(2.97)	5(2.12)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5(37.91)	0.48	0.92	83(79.05)	17(16.19)	3(2.86)	2(1.9)
	장녀	172(62.09)			130(75.58)	33(19.19)	5(2.91)	4(2.33)
종교	불교	250(39.56)	42.39	0.0001***	214(85.6)	35(14.0)	1(0.4)	0(0.0)
	기독교	127(20.09)			88(69.29)	24(18.9)	12(9.45)	3(2.36)
	천주교	95(15.03)			73(76.84)	15(15.79)	2(2.11)	5(5.26)
	기타	17(2.69)			11(64.71)	5(29.41)	1(5.88)	0(0.0)
	무교	143(22.63)			105(73.43)	29(20.28)	4(2.8)	5(3.5)

*** < 0.001 ** < 0.01 * < 0.05

3) 조상숭배

어른이 되었을 때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와 차례는 누구네 집에서 지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제물 등을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란 질문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모든 자식들이 나누어 맡아야한다" 35.27%, 다음으로는 "장남(큰아들)의 집에서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 31.8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 표 4-17 >과 같다.

< 표 4-17 > 조상 숭배에 대한 의견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장남(큰아들)의 집에서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	장남과 차남을 가리지 말고 모든 아들들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모든 자식들이 나누어 맡아야한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은 자식이 맡아야 한다	전통 제사 방법을 버리고 간단하게 추모를 한다면 아무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638(100.0)			203(31.82)	182(28.53)	225(35.27)	6(0.94)	22(3.45)
지역별	제주시	157(24.61)	16.48	0.17	46(29.3)	39(24.84)	65(41.4)	0(0.0)	7(4.46)
	서귀포시	157(24.61)			50(31.85)	39(24.84)	60(38.22)	2(1.27)	6(3.82)
	북제주군	162(25.39)			64(39.51)	47(29.01)	45(27.78)	2(1.23)	4(2.47)
	남제주군	162(25.39)			43(26.54)	57(35.19)	55(33.95)	2(1.23)	5(3.09)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4(74.29)	4.58	0.33	140(29.54)	139(29.32)	173(36.5)	5(1.05)	17(3.59)
	같이 살고 있다	164(25.71)			63(38.41)	43(26.22)	52(31.71)	1(0.61)	5(3.05)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1)	1.28	0.86	9(39.13)	7(30.43)	6(26.09)	0(0.0)	1(4.35)
	같이 살고 있다	615(96.39)			194(31.54)	175(28.46)	219(35.61)	6(0.98)	21(3.41)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7(48.12)	2.66	0.62	106(34.53)	87(28.34)	102(33.22)	2(0.65)	10(3.26)
	있다	331(51.88)			97(29.31)	95(28.7)	123(37.16)	4(1.21)	12(3.63)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7(46.55)	7.07	0.13	80(26.94)	92(30.98)	109(36.7)	3(1.01)	13(4.38)
	있다	341(53.45)			123(36.07)	90(26.39)	116(34.02)	3(0.88)	9(2.64)
성별	남자	354(55.84)	95.58	0.0001***	146(41.24)	124(35.03)	67(18.93)	4(1.13)	13(3.67)
	여자	280(44.16)			56(20.0)	57(20.36)	157(56.07)	2(0.71)	8(2.86)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7(33.05)	29.87	0.0001***	25(21.37)	51(43.59)	33(28.21)	2(1.71)	6(5.13)
	장남	237(66.95)			121(51.05)	73(30.8)	34(14.35)	2(0.84)	7(2.95)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7(38.21)	6.41	0.17	25(23.36)	17(15.89)	59(55.14)	2(1.87)	4(3.74)
	장녀	173(61.79)			31(17.92)	40(23.12)	98(56.65)	0(0.0)	4(2.31)
종교	불교	253(39.78)	34.78	0.004**	89(35.18)	79(31.23)	81(32.02)	2(0.79)	2(0.79)
	기독교	128(20.13)			43(33.59)	30(23.44)	49(38.28)	0(0.0)	6(4.69)
	천주교	94(14.78)			36(38.3)	24(25.53)	27(28.72)	0(0.0)	7(7.45)
	기타	17(2.67)			4(23.53)	5(29.41)	7(41.18)	1(5.88)	0(0.0)
	무교	144(22.64)			30(20.83)	43(29.86)	61(42.36)	3(2.08)	7(4.86)

*** $p < 0.001$ **$p < 0.01$ *$p < 0.05$

장남의 경우 "장남(큰아들)의 집에서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 응답이 51.05%로 비율

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장남이 아닌 경우 "장남과 차남을 가리지 말고 모든 아들들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가 43.59%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장남(큰아들)의 집에서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 응답이 41.24%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모든 자식들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 응답이 장녀 56.65%, 장녀가 아닌 경우 23.36%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불교 35.18%와 천주교 38.3%로 "장남(큰아들)의 집에서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 응답이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기독교 38.18%, 기타 41.18%, 무교 42.36%로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모든 자식들이 나누어 맡아야한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제사 방법

제사방법에 대한 의견은 <표 4-18>과 같다. 어른이 되어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와 차례를 내가 맡아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란 질문에 "옛날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문화전통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모실 것이다." 76.8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지만, 그 절차와 예식은 오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고쳐서 할 것이다."가 16.09%로 높게 조사되었다.

종교종류별(x^2-value=48.96, $p<.001$)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문화전통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모실 것이다." 응답비율이 불교 84.52%, 천주교 80.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지만, 그 절차와 예식은 오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고쳐서 할 것이다." 응답에 있어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 17.05%,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 17.05,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없다. 17.97%, 동생이 없다. 17.35%, 장남 17.23%, 장녀19.77%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형편에 맞게 경건하게 차례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8 > 제사 방법에 대한 의견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체(%)	χ^2	유의도	반응구분(%)			
					옛날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문화전통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모실 것이다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지만, 그 절차와 예식은 오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고쳐서 할 것이다	전통절차와 예식을 버리고 내가 믿는 종교의 예식에 맞추어서 제사를 모실 것이다	제사와 차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사를 모시지 않겠다
전체		639(100.0)			491(76.84)	108(16.90)	31(4.85)	9(1.41)
지역별	제주시	156(24.41)	9.33	0.41	127(81.41)	23(14.74)	4(2.56)	2(1.28)
	서귀포시	157(24.57)			123(78.34)	26(16.56)	8(5.1)	0(0.0)
	북제주군	163(25.51)			124(76.07)	25(15.34)	10(6.13)	4(2.45)
	남제주군	163(25.51)			117(71.78)	34(20.86)	9(5.52)	3(1.84)
조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475(74.33)	0.47	0.93	364(76.63)	81(17.05)	24(5.05)	6(1.26)
	같이 살고 있다	164(25.67)			127(77.44)	27(16.46)	7(4.27)	3(1.83)
부모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3(3.6)	1.69	0.64	18(78.26)	3(13.04)	1(4.35)	1(4.35)
	같이 살고 있다	616(96.4)			473(76.79)	105(17.05)	30(4.87)	8(1.3)
형, 누나, 언니, 오빠	없다	306(47.89)	2.22	0.53	236(77.12)	55(17.97)	12(3.92)	3(0.98)
	있다	333(52.11)			255(76.58)	53(15.92)	19(5.71)	6(1.8)
남동생, 여동생	없다	299(46.79)	4.48	0.21	226(75.59)	49(16.39)	17(5.69)	7(2.34)
	있다	340(53.21)			265(77.94)	59(17.35)	14(4.12)	2(0.59)
성별	남자	355(55.91)	1.23	0.74	276(77.75)	56(15.77)	17(4.79)	6(1.69)
	여자	280(44.09)			212(75.71)	52(18.57)	13(4.64)	3(1.07)
장남 여부	장남 아님	117(32.96)	4.04	0.26	91(77.78)	15(12.82)	9(7.69)	2(1.71)
	장남	238(67.04)			185(77.73)	41(17.23)	8(3.36)	4(1.68)
장녀 여부	장녀 아님	108(38.57)	1.78	0.62	84(77.78)	18(16.67)	4(3.7)	2(1.85)
	장녀	172(61.43)			128(74.42)	34(19.77)	9(5.23)	1(0.58)
종교	불교	252(39.56)	48.96	0.0001***	213(84.52)	32(12.7)	6(2.38)	1(0.4)
	기독교	128(20.09)			83(64.84)	25(19.53)	14(10.94)	6(4.69)
	천주교	95(14.91)			76(80.0)	13(13.68)	6(6.32)	0(0.0)
	기타	17(2.67)			10(58.82)	4(23.53)	3(17.65)	0(0.0)
	무교	145(22.76)			107(73.79)	34(23.45)	2(1.38)	2(1.38)

*** $p < 0.001$

Ⅴ. 결 론

효는 우리의 전통 가치 중 가장 으뜸 덕목이다. 하지만 전통적 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효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다. 효는 사람됨의 길과 인간관계의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치는 그 민족의 주체적 힘이기에 우리나라의 효는 대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은 수천 년 내려오는 효의 가치관과 효 윤리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신세대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맹목적으로 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실천을 강요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의 전통가치 중 으뜸인 효를 현대적으로 조명해 보고 우리의 가정에서 행해야 할 효의 실천방법을 재정립해야만 할 시기이다. 오늘날 산업화 정보화 세계 속에서 효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전통적인 가치 속에서 스스로 자아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이 되는 효의 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효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초등학교에서 효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윤리인 효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효자 상에 대하여 고찰하고, 전통적인 효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효의 현대적 의의와 이의 실천방안 찾음으로써 초등학교에서 효 교육의 개선점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 조사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6학년학생 64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집대상 학교는 제주시 4개교 , 서귀포시 4개교, 북제주군 4개교, 남제주군 5개교였다.

설문지 구성은 ① 부모에 대한 존경, 애정, 동정하는 마음 ② 가족성원의 화합과 이웃에로의 확대 ③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 희생, 책임과 임무 ④ 가족의 영속과 돌아가신 부모님 및 조상에 대한 봉사 덕목으로 나누어 각각 4 -6개 문항씩 작성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Statistical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반응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아동이 다니는 학교 소재지별, 남녀별, 출생순위별, 가족상황, 종교, 컴퓨터 이용시간 등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Chi- Square(x^2)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조사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존경, 애정, 동정심에 인식 정도와 관련해서

· 부모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을 자랑하는 경향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운 마음을 직접 부모님께 표현하는 경우는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여자 중에서는 차녀보다 장녀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부모님이 가장 안쓰럽고 측은해 보일 때는 모든 조사대상자가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라고 대답했으며, 특히 장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일 때 안쓰럽고 측은해 보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 애정, 동정심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차남과 차녀보다 장남과 장녀가 직접 표현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구성원의 화합과 이웃에로의 확대에 대한 인식 정도와 관련해서는

· 부모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형제자매의 편을 들면서 본인에게 양보를 강요할 때였고, 중대사나 고민을 부모님과 상의하는 경향은 독자가 동생이 있는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 부모가 나에게 시킨 일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들은 부모가 시킨 일이니까 무조건 한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구성원의 화합과 이웃에로의 확대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은 형제자매 있는 경우 형(언니, 누나)이나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생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형제

가 1-2명이고 핵가족인 요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 희생, 책임과 임무에 대한 인식 정도와 관련해서

·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려는 생각은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더 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누가 모실 것인 가에 생각은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남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가족의 영속과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봉사 의식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 남학생은 의학기술을 빌려서라도 자식을 얻어 대를 이으려는 생각이 많았다.
· 차남보다는 장남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상에 대한 제사와 차례는 장남(큰 아들)집에서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제주도 초등 학생들의 효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가 우려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두헌, 현대의 가족, 서울 : 을유문화사, 1988.

김학주, 충경・효경, 서울: 명문당, 1986.

박연호, 효경과 효의 교육, 서울 : 대광문화사, 1988.

성백효, 논어집주, 서울 : 전통문화 연구원, 1993.

손인수,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 문음사, 1996.

신용하・장경섭 공저, 21세기 한국의 가족과공동체문화 서울 : 지식산업사, 1997.

윤성범, 현대의 효, 서울 : 을유문화사, 1981.

송영배, 중국사회사상사, 서울 : 한길사, 1986.

임균택, 한사상과 윤리, 서울:형성출판사, 1992.

임양묵, 이 땅에서 철학하기, 서울 : 솔출판사, 1999.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서울 : 예전사, 1986.

한기언, 효도와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81.

<연구물>

박병갑, "초등학생의 효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순천대학교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성규탁,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효 사상 국제학술회의」 한국정신문화원, 1995.

안태원, "효경과 부모 은경중에 나타난 효 사상 비교",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병헌, "초등학생의 효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춘천교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세택, "효 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1984

최순호, "국민학교 학생의 효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Abstract>

Research Study on the Level of Filial Piety of Jeju Elementary Students

ko hi chen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jor of Elementary Moral Education

Advisory Professor Byeon Jong Heon

Filial piety is the top virtue of Korean cultural moral values. However the fact is, as traditional form of family is falling, the general conception of filial piety is being altered. Filial piety is a moral code which presents us how a person's nature should be, and teaches the true way of human relationships. A traditional value is the sovereignly power of that ethnical race, and therefore should be inherited and developed over the future generations. Accordingly, this research studies the theoretical meaning of filial piety, the filial recognition of the elementary students, the problem of traditional filial piety, and the alternative answer, through survey studies.

The summary follows;

Firstly, the tendency of having respect towards parents and prasing them to other people was higher in female students - especially if they are the eldest daughter. The ability of expressing respect and gratitude to parents did not differ much whether the students are living with their parents or

not. Furthermore, when the students were asked when their parents look the most pitiful, there was high inclination of answers when they were sick, or in the case of the eldest sons, economically deprived. This implies that female children have higher possibility of expressing their respect, love, and compassion to their parents, and especially if the child is the eldest one in the family.

Secondly, following results were attained in the area of family interaction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e survey shows, the students feel most miserable and bitter when a parent blindly takes the sibling's side and tells the students to give way to their sibling, and this tendency was higher in younger female children. If the students have younger siblings, they tend to discuss important or difficult matters with their parents, and in addition, in case of female students, they first decide whether the problem is appropriate to discuss with them or not. The ones living with a grandparent or grandparents is apt to unconditionally obey their parents, even though their command seems unjust, and if they have siblings, they responded sensitively to the matter of giving their way to their siblings.

Thirdly, the questions were on responses to repaying the parents' kindness, love, sacrifice, and the filial duties related. In case of students who have siblings, they had a very high tendency of wanting to help their parents' burdens and duties. Both students with siblings, younger or older, and the eldest children in their family, replied that it should be the oldest son in their family who should live with their parents when they are old and gray.

Fourth, the questions were on family permanence and filial duties to the

forefathers and the late parents. The male students clearly suggested that they want to succeed their family with children, even by using modern medical technology. Moreover, the male students including the eldest children answered that the oldest son of the family should take full care of annual Korean traditional ancestral rites.

<부 록>

초등학생의 효 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효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평소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는 다르며 ,성적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따로 하거나, 선생님과 친구의 도움을 얻을 필요도 없고 ,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울러 개인별로 응답한 결과는 전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대답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2002년 2월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 전공
연구자 고 희 천 드림

☞ 먼저 몇 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해당되는 ( )속에 ○표를 하거나 직접 써주세요.

가. 현재 다니는 학교가 위치한 곳은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①제주시( ) ②서귀포시( ) ③ 북제주군( ) ④ 남제주군( )

나.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할아버지( )	할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형( )	누나( )
언니( )	오빠( )	남동생( )	여동생( )	기타( )	

다. 형제자매 중에서 몇 번째 아들 혹은 딸입니까?

① 남 (장남 차남 삼남) ② 여 (장녀 차녀 삼녀)

라.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어느 종교입니까?

① 불교( ) ②기독교( ) ③천주교( ) ④ 기타 ( ) ⑤ 믿는 종교가 없다( )

☞ 이제부터는 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 주세요.

1. 부모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을 자랑합니까?
   ① 부모님을 매우 존경하고 친구들에게도 자주 자랑한다 (　　)
   ② 부모님을 존경하는 편이고 친구들에게 가끔 자랑한다 (　　)
   ③ 부모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　　)
   ④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

2. 나를 낳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②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
   ③ 고마운 마음은커녕 오히려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
   ④ 고마운 마음도 원망스런 마음도 없다(　　)

3.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운 마음을 직접 부모님께 표시하는 편입니까?
   ① 「부모님 존경합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등의 표현을 부모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드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드립니다 (　　)
   ② 위와 같은 표현은 부모님께서 선물, 용돈 등을 주실 때 가끔 하는 편이다 (　　)
   ③ 부모님의 생일, 기념일 등에는 선물을 드리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이다 (　　)
   ④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밖으로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
   ⑤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 (　　)

4. 부모님이 가장 안쓰럽고 측은해 보일 때는 다음 중 어느 때입니까?
   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 하실 때 (　　)
   ② 아프셨을 때 (　　)
   ③ 하시는 일이 잘 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　　)
   ④ 나를 야단치시고 미안해하실 때 (　　)
   ⑤ 기 타 (　　).

5. 부모님이 나를 슬프게 하고 원망스럽게 할 때는 다음 중 어떤 때입니까?
   ① 시도 때도 없이 공부만 하라고 하실 때 (　　)
   ② 친구와 놀거나 컴퓨터 오락, 게임 등을 하지 못하게 하실 때 (　　)
   ③ 시간이 있는데도 부모님이 나와 놀아주지 않을 때 (　　)

④ 용돈을 주지 않거나 사고 싶은 물건을 사주지 않을 때 (　　)
⑤ 형(언니, 누나)이나 동생의 편을 들면서 무엇이든 나만 양보하라고 할 때(　　)

6.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 등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실천하는 편입니까?
① 항상 부모님과 의논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 (　　)
② 일의 성격에 따라 의논할 일은 의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다. (　　)
③ 부모님과 의논하고 싶어도 부모님께서 의논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　　)
④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의논한다.(　　)
⑤ 부모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 (　　)

7. 부모님의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심부름, 방청소 등을 잘 하는 편입니까?
① 매우 잘하는 편이다 (　　)
② 잘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　　)
③ 잘 하지 못하는 편이다 (　　)
④ 부모님께서 심부름 값, 방 청소 값 등 어떤 대가를 주면 한다 (　　)
⑤ 부모님의 일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셔야 하고 나는 내 일만 잘 하면 된다 (　　)

8. 부모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 내가 보기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합니까?
① 부모님께서 시킨 일이니까 무조건 시킨 대로한다 (　　)
② 옳아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시킨 일은 되도록 따르려 노력한다(　　)
③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부모님이 시킨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따르지 않는다 (　　)
④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부모님께 그러한 사실을 간곡히 말씀드려보고 난 다음에 처리한다 (　　)
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　　)

9. 집에서 어떤 일로 형제자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① 나의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대로 일이 해결되도록 한다(　　)
② 부모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결해 주도록 부탁드린다 (　　).
③ 형제자매 사이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을 한다 (　　)
④ 되도록 내가 양보하여 다른 형제자매의 의견을 따른다 (　　)
⑤ 의견 차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을 잘 처리한다 (　　)

10.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거거나, 혹은 버스 안에서 만났을 때, 대신

짐을 들어 주거나 자리를 양보하겠습니까?

① 당연히 짐을 들어주거나 자리를 양보한다 (　　)

② 내가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　　)

③ 내가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르는 분이면 대신 들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　　)

④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짐을 대신 들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 (　　)

⑤ 그 때 상황을 보아서 결정하겠다 (　　)

11. 초등학생인 내가 현재의 위치에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 드리는 것(　　)

② 공부를 잘하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　　).

③ 형제자매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　　)

④ 친구,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

⑤ 육체적, 정신적으로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　　)

12. 나의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부모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　　)

② 부모님을 설득해 보다가 정 안되면 부모님의 바라는 대로 따르겠다(　　)

③ 부모님을 설득해 보다가 안되면 거역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　　)

④ 좀 더 자라서 다시 부모님과 상의해서 장래 희망을 결정하겠다(　)

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갈 것이다 (　　).

13.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누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장남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　　)

② 장남이 아니라도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 (　　).

③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　　)

④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은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 (　　)

⑤ 노인복지 관련 국가 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서 모시도록 한다 (　　)

14.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당연히 우리 집에 모셔야하고 최선을 다해 모실 것이다 (　　)

② 부모님의 집을 따로 장만하여 자주 드나들면서 모시도록 하겠다 ( )
③ 부모님의 집을 따로 장만하여 사람을 고용하여 모시도록 하겠다 ( )
④ 노인복지 관련 국가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서 모시도록 하겠다 ( )
⑤ 나와 결혼한 아내 혹은 남편과 의논해서 어떻게 모실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 )

15. 옛날에는 부모 슬하에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매우 큰 불효라고 여겨왔습니다. 만 약 내가 어른이 되어 결혼했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게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가능하면 첨단 현대 의학기술을 빌려서라도 자식을 얻어 대를 잇도록 하겠다( )
② 입양기관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와 양자로 삼고 대를 잇도록 하겠다( )
③ 자식이 없어도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겠다( )
④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입양기관으로부터 양자를 입양할 생각은 있다( )

16. 옛날부터 내려온 조상에 대한 제사와 차례 지내기, 성묘와 벌초 등의 문화전통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아름다운 효의 문화전통이므로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한다 ( )
② 아름다운 문화전통이긴 하지만 오늘날에 맞게 고쳐야 한다 ( )
③ 사람마다 믿는 종교가 다르고 조상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를 필요는 없다( )
④ 오늘날 반드시 따라야할 아름다운 문화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

17.어른이 되었을 때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와 차례는 누구네 집에서 지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제물 등을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① 장남(큰아들)의 집에서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 ( )
② 장남과 차남을 가리지 말고 모든 아들들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 ( )
③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모든 자식들이 나누어 맡아야한다 ( )
④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은 자식이 맡아야 한다 ( )
⑤ 전통제사 방법을 버리고 간단하게 추모를 한다면 아무나 할 수 있을 것이다 ( )

18. 어른이 되어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와 차례를 내가 맡아야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옛날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문화전통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모실 것이다 ( )
②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지만, 그 절차와 예식은 오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고쳐서 할 것이다 ( )

③ 전통절차와 예식을 버리고 내가 믿는 종교의 예식에 맞추어서 제사를 모실 것이다( )

④ 제사와 차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사를 모시지 않겠다 ( )

☞ 다음 두 질문은 답변 방식이 지금까지와 다르니 유의해 주십시오.

19. 일생동안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효도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우선 순위를 매긴다면 ?

① 연로하신 부모님을 물심양면으로 잘 모시고 사는 것 ( ).

②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와 차례, 성묘와 벌초 등을 잘하는 것 ( ).

③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과 집안을 드러나게 하는 것 ( )

④ 자식을 낳아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 )

⑤ 형제자매가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사는 것 ( ) .

20. 지금까지 효 의식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답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래에 직접 써 주십시오.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